

2015년 11월

재난안전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11월의 재난발생 현황분석

- 자연재난 | 강풍·풍랑 및 호우·대설
- 사회재난 | 산불 및 산악사고
- 소방활동 | 화재 및 구조·구급 통계
- 해경활동 | 중국어선 단속 및 해양사고

최근 발생한 주요재난

- 경기 용인 위험물저장시설 화재
- 경북 상주터널 내 차량화재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항 평진호 침수사고

과거 11월 발생 주요재난 사례

-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화재
- 부산 영도구 방파제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재난관리 정보마당

- 산악사고 예방요령
-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 전기장판 안전사고 예방요령
- 바다낚시(갯바위·방파제) 사고예방 요령



11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요약

11월은 강풍·풍랑 등 자연재난과 산불·산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 기간에 발생한 재난을 종합적으로 분석·전망,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 사전대비 및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기상전망과 사회적 여건

- 평년보다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으며 후반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음
- 막바지 단풍철 등산객 증가로 산악 안전사고와 산불발생이 예상되어 사전예방활동이 필요한 시기

재난피해 현황분석

【자연재난】

◆ 최근 10년('05~'14년)간 자연재해는 총 186건으로 270명 인명피해, 6조2,695억원의 재산피해 발생함. 그중 11월은 7건으로 121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가. 강풍·풍랑

- 최근 10년('05~'14년)간 11월에는 강풍(2회), 풍랑(2회)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06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11월중 가장 큰 피해사례는 '12.11.11~11.12기간동안 인천·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지역에 강풍·풍랑이 발생하여 52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 **강풍·풍랑 대비 기상상황 모니터링 강화, 기상 예비특보 단계부터 시설물 사전 보호조치 등 피해예방 대책**

나. 호우·대설

- 최근 10년('05~'14년) 11월에는 호우로 2건, 대설 1건으로 인명피해 없으나 1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 (호우) '11.11.18, 제주 지역의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및 하천 등 2억원의 재산피해 발생(서귀포 143mm)
 - (대설) '11.11.30, 경가강원경북 지역의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등 13억원의 재산피해 발생(미시령 59cm)
- ➔ 기습 폭설에 대비한 취약구간 제설자재·장비 배치, 대설 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한 발 빠른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 추진 필요

【사회재난】

- ◆ 최근 5년('09~'13년)간 사회재난은 145만8천여건 중 11월은 124,945건 발생
 - ※ 막바지 단풍철 산행인구 증가로 인한 산악사고와 입산자 실화로 산불 증가

가. 산불

- 최근 5년('10~'14년)간 11월중 82건의 산불이 발생, 1명 사망 59.45ha의 산림소실로 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 (원인별) 입산자 실화 50건(61%), 기타 18건(22%), 담뱃불 6건(7%), 쓰레기 소각 5건(6%), 논밭두렁 소각 3건(4%) 순
 - (지역별) 지역별로는 강원 18(22%), 경남 13건(16%), 경북 11건(13%), 충북 8건(10%), 경기 7건(9%) 순
- ➔ 등산객 화기소지 금지, 농촌지역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금지 등 가을철 산불방지대책(11.1~12.15) 추진

나. 산악사고

- 최근 5년('10~'14년)간 국립공원 연평균 탐방객수는 20,435만여명으로, 마지막 단풍철인 11월 12%인 2,377만여 명으로 나타남
- ➔ 단풍철 막바지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의 증가가 예상되어 등산로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안전산행요령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소방활동】

- ◆ 최근 5년('10~'14년)간 전국의 화재는 총 212,054건, 11월은 평균 3,297건으로 사망 28명, 250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 최근 5년('10~'14년)간 전국 구조·구급 활동사항, 11월 평균 22,120건의 구조활동으로 7,820명 구조, 구급활동은 117,800건으로 121,600명 이송
 - 등산객 안전사고 및 기온 변화로 인해 질병환자 구조·구급 증가
- ※ 5년('10~'14년) 연평균 구급활동 : 1,492,705건(총7,463,523건), 1,541,168건(총7705842건)

가. 화재

- 최근 5년간('10~'14년) 11월 중 화재는 총 16,483건이 발생하여 822명(사망 138명, 부상 684명)의 인명피해와 1,25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
 - 1일 평균 화재 110건, 사망 0.9명, 재산피해 8억원의 피해가 발생함
 - 장소별로 주택 900건(27%), 야외(소각등) 698건(21%), 자동차 384건(11.5%), 공장창고 354건(10.6%) 등 순으로 발생
 - 원인별로 부주의 1,516건(46%), 전기적요인 767건(23.3%), 기계적요인 340건(10.3%) 등의 순임
- ➔ **기온이 낮아지면서 난방기 사용증가로 인한 화재, 다중이용업소 등 대형화재에 대비한 예방·홍보 강화 필요**

나. 구조·구급

- 5년 평균, (구조) 375,479건 103,351명구조, (구급) 1,492,705건 1,541,168명 이송
 - 최근 5년간('10~'14년) 11월 중 구조·구급 통계 분석 결과
 - 구조활동 건수(22,127건)는 전월(30,338건)에 비해 27.1%(8,211건) 감소
 - 구급활동(117,722건)은 전월(126,587건)보다 7%(8,865건) 감소,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121,604명으로 전월보다 7.1%, 9,325명 감소
- ➔ **산악사고 안전수칙 준수와 기온 변화로 인한 각종 질병환자 증가가 예상되어 건강관리에 주의 필요**

【해경활동】

- ◆ 최근5년('10~'14년)간 평균 선박사고는 총 1,495척 / 9,989명 발생
 -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는 총 7,479척(49,945명)이 발생하여 선박 7,184척(96.1%) 및 승선원 49,070명(98.2%)이 구조되고, 선박 295척(3.9%) 및 승선원 875명(1.8%)이 사망(631명).실종(244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 ◆ 최근 5년간 11월 선박사고 선종별 현황은 어선 415척(68.1%), 예부선 58척(9.5%), 화물선 30척(4.9%), 유조선 8척(1.3%) 등의 순으로 발생

- (허가수역) '15.1~10월까지 일평균 141척의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조업, 10.16(금) 저인망조업 재개에 따라 일일 5~600여척의 중국어선이 조업 중
- 이는 동절기 성어기('15.12월~'16.1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최근 3년 중국어선 총 조업척수 변화 : 12년 85천여척 → 13년 80천여척 → '14년 81천여척
- (NLL북한수역) 꽃게 성어기를 맞아 日평균 2~300여척이 조업중이며, 성어기가 종료되는 11월까지 지속 전망
 - ※ 최근 3년('12~14년) 평균 9~11월 日평균 100~200여척이 조업
- 최근 3년('13~'15.9월)간 월별 나포현황은 중국어선 최성어기인 동절기(11~1월)에 총 나포척수의 50% 이상을 차지함
 - 최근 3년간 업종별 나포어선은 저인망어선 683척(62%), 다음으로 유자망 308척(28%), 기타 운반선 65척(6%) 등 순임
 - 최근 2년('13~'14년)간 11월 중국어선 나포척수는 174척(13년 85척, 14년 41척)임
- ➔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로 및 낚시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낚시어선 및 해안가 행락객에 대한 안전관리와 집중 계도(단속)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활동 추진 필요

목 차

I. 기상전망 및 사회적 여건	
1. 기상전망	1
2. 사회적 여건	6
II. 11월 재난발생 현황 분석	
1. 자연재난	7
2. 사회재난	12
3. 소방활동	19
4. 해경활동	23
III. 최근 발생한 주요재난	
1. 경기 용인 위험물저장시설 화재	30
2. 경북 상주터널 내 차량화재	32
3.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항 평진호 침수사고	33
IV. 과거 주요 재난사례 분석	
1.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34
2.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화재	35
3. 부산 방파제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36
V. 재난관리 정보마당	
1. 산악사고 예방요령	37
2. 산불 발생시 행동요령	39
3. 전기장판 안전사고 요령	41
4. 바다낚시 사고예방 요령	42
VI. 주요 언론보도 사항	
1. 2015년 10월 언론보도 주요내용	43
2. 2014년 11월 언론보도 주요내용	49

기상전망

1 11월 기상전망

평년보다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으며 찬 대륙고기압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음

날씨 전망

- (1주) 이동성 고기압과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2주) 이동성 고기압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3주) 이동성 고기압과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4주)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기온 및 강수량

기간 \ 요소	평균기온			강수량				
	평년 (°C)	확률(%)			평년 (mm)	확률(%)		
		낮음	비슷	높음		적음	비슷	많음
1주 (11.02~11.08)	10.3	20	45	35	11.4	20	45	35
2주 (11.09~11.15)	8.7	20	30	50	11.9	20	45	35
3주 (11.16~11.22)	6.1	20	45	35	8.4	20	30	50
4주 (11.23~11.29)	5.2	30	40	30	11.3	30	40	30

11월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겠지만, 12월과 1월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주기적인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음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음

☐ 날씨 전망

- (11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으며, 후반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12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음.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1월)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기온 및 강수량

【 3개월(2015년 11월~2016.1월) 전망 요약 】

기간 \ 요소	평균기온			강수량				
	평년 (°C)	확률(%)			평년 (mm)	확률(%)		
		낮음	비슷	높음		적음	비슷	많음
11월	7.6	20	30	50	46.7	20	30	50
12월	1.5	35	45	20	24.5	20	45	35
1월	-1.0	20	45	35	28.3	35	45	20

● 월별 평균기온 확률전망(%)

지역	기간	11월			12월			1월		
		낮음	비슷	높음	낮음	비슷	높음	낮음	비슷	높음
전국(제주도,북한제외)		20	30	50	35	45	20	20	45	35
서울·인천·경기도		20	30	50	35	45	20	20	45	35
강원도 영서		20	30	50	35	40	25	20	45	35
강원도 영동		20	30	50	35	45	20	20	45	35
대전·세종·충청남도		20	30	50	35	45	20	20	45	35
충청북도		20	30	50	35	45	20	20	45	35
광주·전라남도		20	30	50	35	45	20	20	45	35
전라북도		20	30	50	35	45	20	20	45	35
부산·울산·경상남도		20	30	50	35	45	20	20	45	35
대구·경상북도		20	30	50	35	45	20	20	45	35
제주도		20	35	45	40	45	15	25	40	35
평안남북도·황해도		20	30	50	35	45	20	20	50	30
함경남북도		20	30	50	35	40	25	20	50	30

▶ 낮음

▶ 비슷

▶ 높음

● 월별 강수량 확률전망(%)

지역	기간	11월			12월			1월		
		적음	비슷	많음	적음	비슷	많음	적음	비슷	많음
전국(제주도,북한제외)		20	30	50	20	45	35	35	45	20
서울·인천·경기도		20	30	50	20	45	35	35	45	20
강원도 영서		20	30	50	20	45	35	35	40	25
강원도 영동		20	30	50	20	45	35	35	45	20
대전·세종·충청남도		20	30	50	20	45	35	35	45	20
충청북도		20	30	50	20	45	35	35	45	20
광주·전라남도		20	30	50	20	35	45	35	40	25
전라북도		20	30	50	20	35	45	35	45	20
부산·울산·경상남도		20	30	50	20	35	45	35	45	20
대구·경상북도		20	30	50	20	45	35	35	45	20
제주도		20	30	50	20	35	45	40	45	15
평안남북도·황해도		20	45	35	20	50	30	35	40	25
함경남북도		20	45	35	20	50	30	35	40	25

▶ 적음

▶ 비슷

▶ 많음

※ 월별 평균기온 평년값과 평년 비슷 범위(기온편차) 기준표

지역 \ 기간	11월		12월		1월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	평년 비슷 범위(℃)
전국(제주도,북한제외)	7.6	-0.6 ~ 0.6	1.5	-0.5 ~ 0.5	-1.0	-0.6 ~ 0.6
서울·인천·경기도	6.9	-0.6 ~ 0.6	0.1	-0.6 ~ 0.6	-2.8	-0.8 ~ 0.8
강원도 영서	4.7	-0.6 ~ 0.6	-1.9	-0.6 ~ 0.6	-4.9	-0.9 ~ 0.9
강원도 영동	8.9	-0.5 ~ 0.5	3.1	-0.6 ~ 0.6	0.1	-0.6 ~ 0.6
대전·세종·충청남도	6.7	-0.6 ~ 0.6	0.6	-0.5 ~ 0.5	-2.1	-0.7 ~ 0.7
충청북도	5.6	-0.6 ~ 0.6	-0.7	-0.6 ~ 0.6	-3.2	-0.8 ~ 0.8
광주·전라남도	9.6	-0.5 ~ 0.5	3.9	-0.5 ~ 0.5	1.5	-0.5 ~ 0.5
전라북도	8.2	-0.6 ~ 0.6	2.1	-0.5 ~ 0.5	-0.5	-0.6 ~ 0.6
부산·울산·경상남도	8.7	-0.5 ~ 0.5	2.9	-0.5 ~ 0.5	0.7	-0.5 ~ 0.5
대구·경상북도	7.5	-0.5 ~ 0.5	1.6	-0.5 ~ 0.5	-0.7	-0.6 ~ 0.6
제주도	13.5	-0.5 ~ 0.5	8.7	-0.4 ~ 0.4	6.3	-0.5 ~ 0.5
평안남북도·황해도	3.0	-0.6 ~ 0.6	-4.3	-0.7 ~ 0.7	-7.5	-0.9 ~ 0.9
함경남북도	3.9	-0.5 ~ 0.5	-2.2	-0.5 ~ 0.5	-5.0	-0.7 ~ 0.7

※ 월별 강수량 평년값과 평년 비슷 범위(강수량 평년비) 기준표

지역 \ 기간	11월		12월		1월	
	평년(mm)	평년 비슷 범위(%)	평년(mm)	평년 비슷 범위(%)	평년(mm)	평년 비슷 범위(%)
전국(제주도,북한제외)	46.7	80 ~ 120	24.5	85 ~ 115	28.3	80 ~ 120
서울·인천·경기도	51.0	80 ~ 120	20.4	80 ~ 120	20.4	80 ~ 120
강원도 영서	42.2	85 ~ 115	21.0	80 ~ 120	20.1	80 ~ 120
강원도 영동	79.6	75 ~ 125	38.3	65 ~ 135	49.7	75 ~ 125
대전·세종·충청남도	52.7	80 ~ 120	28.9	85 ~ 115	27.6	80 ~ 120
충청북도	43.6	80 ~ 120	24.7	85 ~ 115	25.5	80 ~ 120
광주·전라남도	48.2	80 ~ 120	26.1	75 ~ 125	31.3	80 ~ 120
전라북도	54.0	80 ~ 120	36.8	85 ~ 115	35.7	90 ~ 110
부산·울산·경상남도	40.8	70 ~ 130	19.9	70 ~ 130	28.9	75 ~ 125
대구·경상북도	38.7	70 ~ 130	20.5	70 ~ 130	27.2	75 ~ 125
제주도	66.7	75 ~ 125	46.4	75 ~ 125	63.1	85 ~ 115
평안남북도·황해도	36.2	80 ~ 120	16.1	80 ~ 120	10.6	75 ~ 125
함경남북도	33.1	70 ~ 130	16.2	80 ~ 120	12.2	80 ~ 120

※ 평년기간 : 1981~2010년

※장기예보는 특정 지역의 기후에 관하여 3개월 이내의 미래 상황을 예상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에 대해 평균된 날씨 경향을 예보하며, 단기예보에 비해 정확도가 낮으나 정보 제공을 위해 발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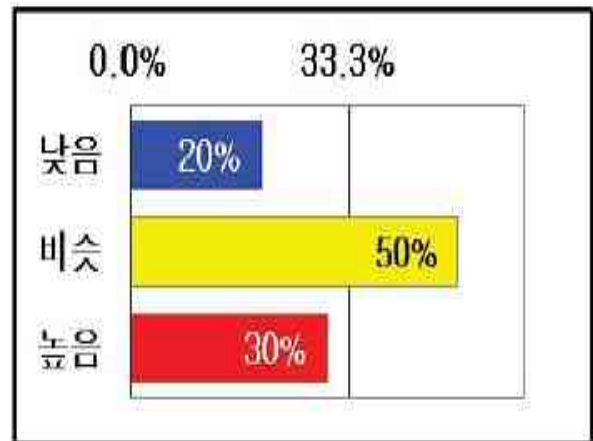
※장기예보를 수신하는 기관에서는 연락처 또는 담당자 변경 시 기상청 (☎02-2181-0482)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량 예보의 '평년 비슷' 범위는 평년기간 중 발생한 극값을 제외하고 산출되었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됨.
엘니뇨 상태는 겨울철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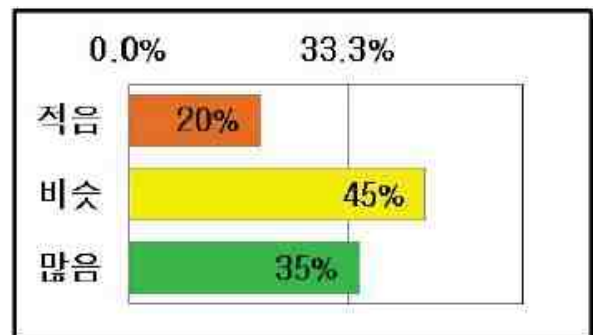
기온 전망

● 평년(0.6°C)과 비슷하겠음.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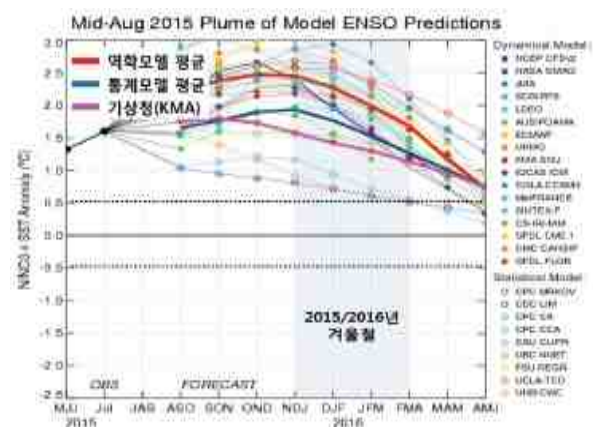
강수량 전망

● 평년(88.5mm)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엘니뇨 전망

● 엘니뇨감시구역(5°S~5°N, 170°W~120°W)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높은 엘니뇨 상태가 겨울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사회적 여건

맑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며 막바지 단풍철 등산객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수능시험(11.12) 전후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객 증가

-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 증가
 - 11월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기로서 산불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확대될 위험이 높음
 - 막바지 가을 단풍을 즐기려는 행락객과 등산객이 많아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 증가
 - 추수 후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소각 시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산불로 전이될 위험이 높은 시기임
- 막바지 단풍철 산악사고 등 안전사고 증가 예상
 - 가을 단풍철 막바지 전국 유명산의 산행 인구 증가
 - 기온 급강하 및 산행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단체관광 등 행락객 이동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증대
- 수능시험(11.12) 전·후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증가 우려
 - 수능시험 전 학원, 독서실 등의 화재 및 안전사고 우려
 - 수능시험 직후 수험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증가 예상
-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벌어지는 일교차로 인한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우려

II 11월 재난발생 현황 분석

자연재난

1 자연재난 분석

11월은 호우·대설, 강풍·풍랑에 의한 일부 피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적은 시기이고, 첫눈이 시작되는 달로서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가 필요함

기상상황 분석

- 최근 10년('05~'14년)간 월별 기상특보 발표현황을 보면, 11월에는 1,039건의 특보 발령
- 전체 특보 횟수 1,039중 강풍·풍랑이 73.3%(762건)으로 가장 많고, 건조 8.2%(85건)이며, 그 외 대설, 호우 순으로 나타남

【최근 10년('05 ~'14년)간 기상특보 발표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5,805	1,537	1,168	1,317	1,158	753	661	2,251	2,212	1,018	575	1,039	2,116
강풍	2,811	225	218	372	384	199	81	161	165	127	178	303	398
풍랑	4,082	452	381	436	416	213	145	186	255	264	272	459	603
호우	4,336	7	18	59	117	212	405	1,544	1,393	440	78	55	8
대설	1,915	505	343	202	14	-	-	-	-	-	1	78	772
건조	942	165	132	156	183	76	-	-	-	-	11	85	134
해일	27	-	-	-	-	-	4	1	19	3	-	-	-
황사	232	-	15	69	44	52	-	-	-	-	-	26	26
한파	484	183	61	23	-	-	-	-	-	-	9	33	175
태풍	413	-	-	-	-	-	14	76	126	171	26	-	-
폭염	563	-	-	-	-	1	12	283	254	13	-	-	-

❏ 자연재해 분석

- 최근 10년('05~'14년)간 발생한 월별 자연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6건의 자연재해로 270명 인명피해와 62,695억원(14년 환산 : 69,440억)의 재산피해 발생
- 11월에 7건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없고 121억원의 재산피해만 발생

【최근 10년간('05~'14) 월별 자연재난 발생현황 - 재해연보】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86	12	14	15	11	3	14	42	31	13	8	7	16
인명피해(명)	270	-	-	1	-	-	2	171	38	32	12	-	14
재산피해(억원)	62,695	542	734	968	370	9	308	28,601	15,051	9,092	843	121	6,056

① 강풍·풍랑

【현황】

- 최근 10년('05~'14년)간 총 40건의 강풍·풍랑이 발생하여, 사망·실종 12명의 인명피해와 1,365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최근 10년('05~'14년)간 월별 강풍·풍랑 발생현황 - 재해연보】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피해발생 회수	40	2	4	9	10	2	-	2			5	4	2
인명피해(명)	12	-	-	1	-	-	-	-	-	-	11	-	-
재산피해(억)	1,365	110	120	411	367	9	-	43			127	106	72

【분석】

- 11월 강풍·풍랑으로 인한 피해는 4회가 발생, 106억원 재산피해 발생

【최근 10년('05~'14년)간 11월중 강풍·풍랑 피해발생 현황 - 재해연보】

기간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원)	주요 피해지역
합계	0	106	
'06.11.04~11.09	-	33	인천, 강원, 충남, 전남북, 경남북
'09.11.09~11.13	-	16	울산, 경북, 제주
'12.11.11~11.12	-	52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13.11.25~11.25	-	5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 (강풍) '06.11.4~11.9 기간동안 인천·강원·충남·전남·전북·경북·경남 지역에 강풍으로 이재민 6명과 선박, 수산증양식시설, 어항 등 33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풍랑) '09.11.9~11.13 기간동안 울산·경북·제주 지역에 풍랑이 일어 선박, 어망·어구 등 16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강풍·풍랑) '12.11.11~11.12 기간동안 인천·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 지역에 강풍·풍랑이 발생하여 어항, 어망·어구, 비닐하우스, 김양식시설, 내수면 양식장 등 52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강풍·풍랑 대비 수산증·양식시설 지지대 보강 고정, 기상특보 시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 및 출항 제한 등 상황관리 필요

② 호우·대설

【현황】

- 최근 10년('05~'14년)간 호우로 인한 피해는 총 89건 발생, 인명피해 200명, 재산피해 36,620억원이며, 대설피해는 총 39건 발생, 인명피해 14명과 재산피해 7,574억원 발생

【 최근 10년('05~'14년)간 월별 호우·대설 피해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 재해연보 】

분야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호우	건 수	89	-	-	1	1	1	14	36	25	7	2	2	-
	인명피해(명)	200	-	-	-	-	-	2	170	25	2	1	-	-
	재산피해(억원)	36,620	-	-	25	2	-	308	28,516	6,410	658	699	2	-
대설	건 수	39	10	10	5	-	-	-	-	-	-	-	1	14
	인명피해(명)	14	-	-	-	-	-	-	-	-	-	-	-	14
	재산피해(억원)	7,574	433	614	531								13	5,983

【분석】

- 11월에는 호우 2건, 대설 1건 발생, 재산피해 15억원 발생
- (호우) '11.11.18, 제주 지역의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및 하천 등 2억원의 재산피해 발생(서귀포 143mm)
- (대설) '11.11.30, 경기·강원·경북 지역의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등 13억원의 재산피해 발생(미시령 59cm)

【최근 10년('05~14년)간 11월중 호우·대설 피해발생 현황 - 재해연보】

기 간	원인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원)	주요 피해지역	비고
합 계	2건		15		
'11.11.18	호우		2	제주	
'11.11.30	대설		13	경기, 강원, 경북	
'13.11.24	호우		0.1	경기	

➔ 기습 호우·폭설에 대비한 취약구간 제설자재·장비 배치, 대설 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한 발 빠른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 필요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및 강풍·풍랑 피해 예방을 위한 해안가 시설물 점검·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중점 관리

● 겨울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

- 기상특보에 대비한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
- 고속도로 등 취약구간 제설대책 및 책임담당제 실시
- 극한기상 대비 장비·자재 응원체계 및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
-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 운영 준비 및 취약계층 특별관리 추진
- 산간마을 등 고립예상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 대설 대비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활동 전개
- 협업기능을 활용한 겨울철 재난관리 활성화 추진

● 강풍·풍랑 피해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 추진

- 풍랑특보 시 선박출항, 낚시객·어민 등 조업 및 외출자제
- 농림시설(비닐하우스, 인삼·버섯재배시설 등)과 수산증·양식시설 사전 결박 및 보강 조치
- 지자체는 놀이공원, 유원지 등의 놀이시설 운영중지 및 공사장 크레인 대피 조치 등
- 강풍·풍랑 대비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

● 너울성 파도 대비 해안지역 관리 강화

-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에 대한 낚시객 등 출입통제
- 해안가 인명피해 위험구역 정기 예찰활동 실시
- 위험지역·관광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안전시설 설치
-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책임자 지정·운영 및 위험표지판 설치
-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대국민 홍보 전개

사회재난

1 사회재난 분석

춥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증가 및 막바지 단풍철 산악사고 증가

발생현황

- 최근 5년(09년~13년) 간 총 1,458,159건 중 11월에 124,945건(8.6%) 발생
- 11월 평균 발생건수는 24,989건으로 전월(10월) 26,375건에 비해 1,386건 감소
 - 화재, 산불은 증가한 반면 대부분의 사회재난 발생 건수는 감소함

【최근 5년('10~'14년)간 11월중 사회재난(사고) 발생현황 - 재난연감】

구 분		계	교통	화재	해양	붕괴	산불	산악	농기계	기타
5년 전체	총건수	1,458,159	1,111,151	217,237	7,982	1,653	1,622	23,211	5,612	89,691
	10월	131,875	103,321	16,231	802	98	59	3,108	832	7,424
	11월	124,945	99,856	16,894	645	90	82	1,749	417	5,208
5년 평균 (전월 비교)	10월	26,375	20,664	3,246	160	20	12	622	166	1485
	11월	24,989	19,971	3,379	129	18	17	350	83	1,042
	증감	1,386↓	693↓	133↑	31↓	2↓	5↑	272↓	83↓	443↓

※ 기타 : 수난, 감전, 레저, 추락, 철도, 가스, 환경오염, 폭발, 광산사고 ↑↓

< 11월 발생 주요 사건·사고 사례 >

- ◇ '14.11.27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80여개 점포 중 41곳 소실(재산피해 2억원)
- ◇ '13.11.16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추락사고(사망 2명)
- ◇ '13.11.10 제주 월드컵경기장 놀이기구(에어바운스) 전복사고(부상 15명)
- ◇ '11.11.16 서울 신길시장 정비사업 공사현장 천공기 전도사고(사망 1명, 부상 4명)
- ◇ '11.11.29 경북 김천시 부항면 경운기 운전 중 추락사고(사망 1명)
- ◇ '10.11.25 전남 신안군 우이동 남서방 해상 어선 전복사고(사망 4명)
- ◇ '10.11.12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망 10명, 부상 16명)
- ◇ '10.11.03 경북 영덕군 축산면 석산입구 바다 밤 낚시 중 사고(사망 1명)
- ◇ '10.11.02 경기 파주시 교하읍 지하철도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사망 1명)
- ◇ '03.11.17 경기 평택 화영아파트 LPG가스 유출 폭발(사망 2명, 부상 14명)

주요 재난별 분석

1 산불

【현황】

● 최근 10년('05~'14년) 간 11월 중 22회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6% 발생

-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전체의 41.75%(1,604건) 차지, 그 밖에 소각 28.92%(1,111건), 담뱃불 실화 7%(287건) 순으로 나타남

* 등산객 등에 의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비중이 높음

【 최근 10년('05~'14년)간 원인별 산불 발생 비율(%) - 산림청 】



【 최근 10년('05~'14년)간 산불 발생 현황 - 산림청 】

구분	10년 평균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건수 (건)	비율 (%)										
합계	384	100	516	405	418	389	570	282	277	197	296	492
1월	36	10	58	48	61	7	64	24	33	6	7	49
2월	46	12	37	41	122	70	32	30	40	9	30	54
3월	93	24	124	175	70	85	119	22	94	23	113	101
4월	103	27	170	49	110	79	206	51	80	45	69	166
5월	35	9	37	27	11	32	52	45	6	54	30	55
6월	13	3	6	1	18	2	17	21	9	35	6	13
7월	1	-	-	-	-	-	-	-	-	-	-	11
8월	1	-	1	-	-	2	-	-	-	3	7	-
9월	4	1	2	7	-	13	13	-	-	1	3	4
10월	13	3	6	25	1	25	23	5	6	14	11	16
11월	22	6	27	23	20	45	23	44	5	5	9	19
12월	17	5	48	9	5	29	21	40	4	2	1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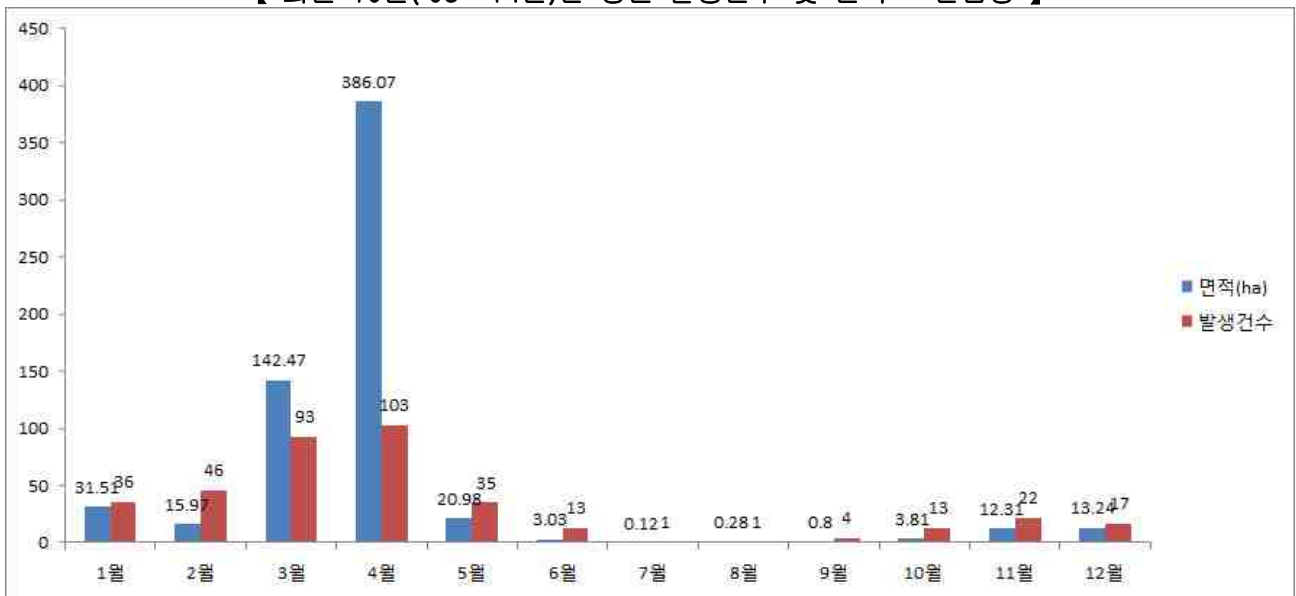
【 최근 10년('05~'14년)간 월별 피해 면적 - 산림청 】

구분	10년 평균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면적 (ha)	비율 (%)										
합계	630.57	100	2,066.58	254.34	230.4	226.9	1,380.58	294.84	1,089.53	71.91	551.78	136.92
1월	31.51	5	29.00	29.13	21.77	0.81	84.23	5.73	132.63	2.39	1.36	8.08
2월	15.97	3	10.46	13.32	40.24	35.07	13.71	5.02	10.03	2.51	16.65	12.64
3월	142.47	23	71.90	154.48	36.98	41.62	68.51	8.30	505.72	9.11	479.57	48.47
4월	386.07	61	1,910.90	24.67	110.90	83.24	1,156.83	35.92	430.39	32.82	26.40	48.61
5월	20.98	3	9.55	9.20	5.78	8.42	31.61	99.44	2.12	13.65	19.12	10.92
6월	3.03	0	1.85	0.30	4.86	0.07	3.96	6.83	3.18	7.87	0.18	1.18
7월	0.12	0	-	-	-	-	-	-	-	-	-	1.16
8월	0.28	0	0.20	-	-	0.23	-	-	-	0.37	2.02	-
9월	0.80	0	0.51	2.89	-	2.62	1.46	-	-	0.09	0.12	0.31
10월	3.81	1	2.08	9.9	0.20	10.25	6.18	0.93	0.99	1.49	3.44	2.73
11월	12.31	2	6.09	4.17	7.48	39.97	5.90	51.82	3.66	1.16	0.35	2.45
12월	13.24	2	24.04	6.28	2.19	4.60	8.19	80.85	0.81	0.45	2.57	0.37

● 최근 10년('05~'13) 간 산불 최다 발생시기로 봄철(3~5월)은 4월이 평균 103건(27%)으로 가장 많고, 가을(9~11월)은 11월이 평균 22건(6%)으로 가장 많음

- 월별로는 4월이 103건(27%), 3월이 93건(24%), 2월 46건(12%), 1월 36건(10%), 5월 35건(9%), 11월 22건(6%)등 순임
- 가을 낙엽이 쌓이는 11월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여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대될 위험이 높은 시기임

【 최근 10년('05~'14년)간 평균 발생건수 및 면적 - 산림청 】



【분석】

- 최근 5년('10~'14년)간 11월중 82건의 산불이 발생, 2명 사망 59.45ha의 산림 소실로 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 최근 5년('10~'14년)간 11월 산불 발생 현황 - 산림청 】

연도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백만원)	인목피해 (ha)
		계	사망	부상		
합계	82	2	2	-	724	59.45
'10년	44	1	1	-	301	51.8
'11년	5	-	-	-	163	3.6
'12년	5	-	-	-	40	1.2
'13년	9	1	1	-	25	0.4
'14년	19	-	-	-	195	2.45

-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50건(61%), 기타 18건(22%), 담뱃불 6건(7%), 쓰레기 소각 5건(6%), 논밭두렁 소각 3건(4%) 순

【 최근 5년('10~'14년)간 11월 원인별 산불 발생 현황 - 산림청 】

연도별	합계	입산자실화	논밭두렁소각	쓰레기소각	담뱃불실화	성묘객실화	어린이불장남	기타
합계	82	50	3	5	6	0	0	18
'10년	44	31	0	4	1	0	0	8
'11년	5	2	1	0	2	0	0	0
'12년	5	5	0	0	0	0	0	0
'13년	9	5	0	0	1	0	0	3
'14년	19	7	2	1	2	0	0	7

- 지역별로는 강원 18(22%), 경남 13건(16%), 경북 11건(13%), 충북 8건(10%), 경기 7건(9%) 순

【 최근 5년('10~'14년)간 11월 지역별 산불 발생 현황 - 산림청 】

연도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2	6	4	1	4	0	1	1	7	18	8	2	1	5	11	13	0
'10년	44	2	2	0	3	0	1	1	2	9	6	2	1	3	3	9	0
'11년	5	0	0	0	0	0	0	0	0	2	1	0	0	0	1	1	0
'12년	5	0	0	0	0	0	0	0	0	1	1	0	0	1	2	0	0
'13년	9	0	1	1	0	0	0	0	0	2	0	0	0	0	4	1	0
'14년	19	4	1	0	1	0	0	0	5	4	0	0	0	1	1	2	0

② 산악 사고

【현황】

- 최근 5년('10~'14년)간 국립공원의 탐방객은 총 20,435만여명으로, 마지막 단풍철인 11월 12%인 2,377만여 명으로 나타남

【 최근 5년('10~'14년)간 국립공원 월별 탐방객 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 (만명)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435	1,007	895	1,153	1,653	2,272	1,754	1,661	2,195	1,449	3,086	2,377	933
2010	3,980	181	169	197	344	482	326	351	460	246	589	488	147
2011	3,790	160	162	202	317	417	309	307	421	271	617	433	174
2012	3,725	199	177	203	295	438	333	318	370	245	578	409	160
2013	4,299	181	162	255	332	458	385	319	474	330	647	525	231
2014	4,641	286	225	296	365	477	401	366	470	357	655	522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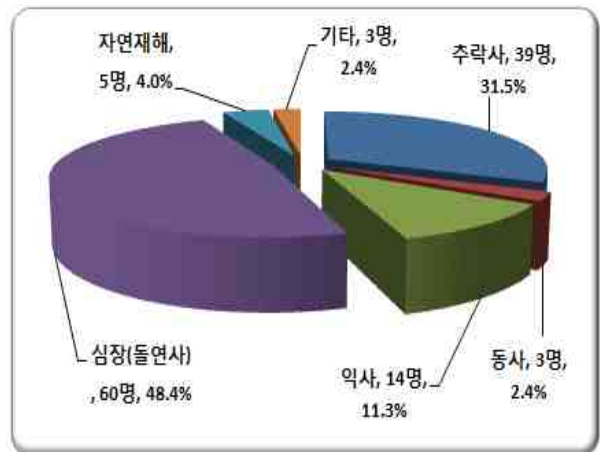
【분석】

- 최근 5년('10~'14년)간 국립공원에서는 탐방객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429명(사망 124명, 부상 1,305명) 발생

【최근 5년('10~'14년) 인명피해 현황】



【최근 5년('10~'14년) 사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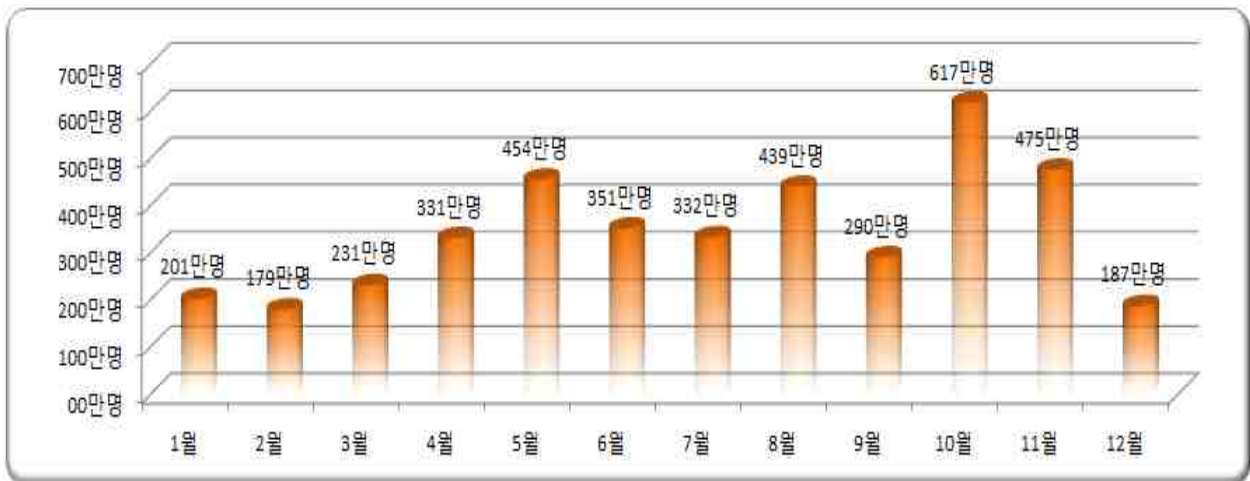
- 사상자의 주요원인은 사망자 중 79.9%(99명)가 심장돌연사·추락사, 부상자 중 72.4%(1,159명)가 골절·상처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자신의 체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산행과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

【 최근 5년('10~'14년)간 국립공원 안전사고 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

연도	합계	사 망							부 상 등		
		소계	추락사	동사	익사	심장(돌연사)	자연재해	기타	소계	골절/상처	탈진/경련
합계	1,429	124	39	3	14	60	5	3	1,305	945	360
2010	381	31	9	0	4	13	5	0	350	230	120
2011	294	20	10	1	2	7	0	0	274	204	70
2012	248	16	6	0	1	9	0	0	232	177	55
2013	269	21	4	0	4	12	0	1	248	180	68
2014	237	36	10	2	3	19	0	2	201	154	47

- 최근 5년('10~'14년)간 11월은 늦가을 마지막 단풍구경을 위한 행락객과 등산객이 산을 찾는 시기로 연중 2번째로 많은 11.6%인 475만여명(최근 5년 11월 평균)이 산을 찾음

【 최근 5년('10~'14년)간 월평균 탐방객 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 】



➔ 안전사고 다발지역 등산로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대국민 안전산행 요령 홍보 강화

산불조심기간 운영(11.1~12.15), 단풍철 등산객의 산악 안전사고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중점 추진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산불방지대책 추진

- 중앙 및 지역산불대책본부(전국 312개 관서)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부분개방 실시 및 단속·계도 활동 강화
- 산불방지시설(CCTV·급수시설 등) 및 진화장비 정비 등 관리 철저
- 산불진화 역량 및 숙련도 향상을 위한 합동시범훈련(산림청·지자체 등) 실시
- 가을철 인화물질 집중제거로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방지
- 초동 및 야간·대형 산불 진화를 위한 기계화진화대 운영(시·군)
- 산불 상황관리 및 시·도간 광역 소방헬기 지원체계 운영
- 산불예방 캠페인 등 예방활동 강화

●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 등산목 안전지킴이(417개소) 활동 강화(구급대 전진 배치)
- 산악 지역내 위치·위험경고표지판 설치 및 정비 실시
- 전국 유명산, 국립공원 입구 등에서 '안전 산행요령' 홍보
- 무리한 암벽등반 자제 및 기상특보 시 입산 통제 등

● 수능시험(11.12) 전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순찰 강화
- 수능 이전 학원, 독서실 등 소방시설 점검
- 언론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홍보

소방활동

1 화재분석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 예방대책과 기온이 내려가고 일교차가 큰 시기로 난방기기 사용 증가 및 재래시장 등 화재로 인한 예방대책 필요

【현황】

- 최근 5년('10~'14)간 전국의 화재는 총 212,054건이 발생하여 10,314명(사망 1,466, 부상 8,875)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11월 평균 화재는 3,297건, 인명피해는 168명(사망28, 부상 137) 발생

【 최근 5년('10~'14년)간 화재 발생 현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연도	화재건수	인 명 피 해			재산피해(억원)
		소계	사 망	부 상	
합계	212,054	10,341	1,466	8,875	16,526
2010	41,863	1,892	304	1,588	2,668
2011	43,875	1,861	263	1,598	2,565
2012	43,249	2,223	267	1,956	2,895
2013	40,932	2,184	307	1,877	4,345
2014	42,135	2,181	325	1,856	4,054

【분석】

- 최근 5년('10~'14)간 11월 중 화재는 평균 3,297건(총 16,483건)이 발생, 28명(총 138명)이 사망하고 250억원(총 1,253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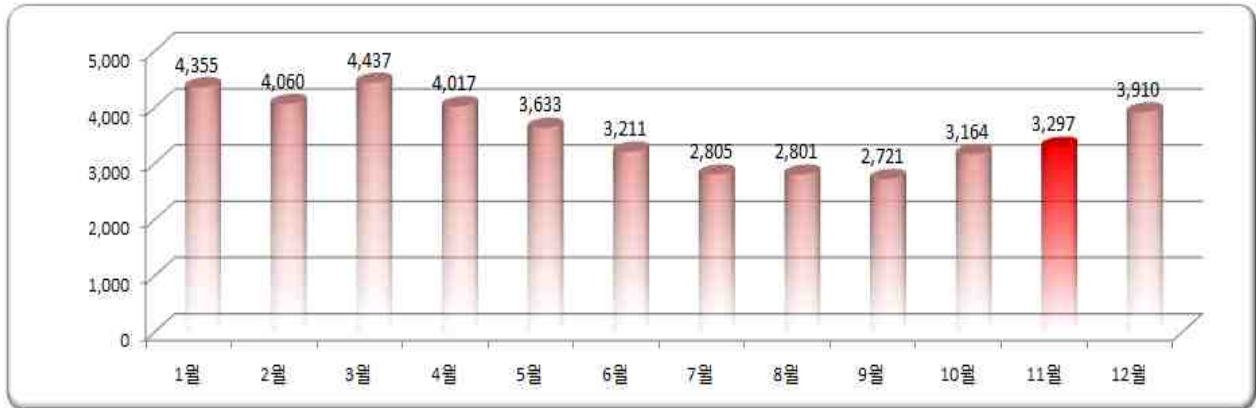
【 최근 5년('10~'14)간 월평균 화재 발생 현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구분	화재건수 (건)	사망 (명)	부상 (명)	재산피해 (억)
5년 평균	3,297	28	137	250
14년 11월	3,113	29	130	306
13년 11월	3,214	25	149	290
12년 11월	3,103	21	133	217
11년 11월	3,034	19	128	192
10년 11월	4,019	44	144	246



● 11월 중 1일 평균 화재는 110건이 발생, 사망 0.9명, 8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최근 5년('10~'14)간 월평균 화재 발생 현황(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최근 5년간 11월 평균 화재발생 장소는 주택 900건(27%), 야외(소각등) 698건(21%), 자동차 384건(11.5%), 공장창고 354건(10.6%) 등 순으로 발생

【최근 5년('10~'14)간 11월 화재 발생 장소 현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분	계	주택(공동)	사무판매	공장창고	음식점서비스	자동차	야외(소각등)	동식물시설	기타건축물	기타
건수(평균)	3,329	900	244	354	303	384	698	80	171	195
비율(%)	100	27.0	7.3	10.6	9.2	11.5	21.0	2.4	5.1	5.9

● 최근 5년간 11월 평균 화재(3,296건) 원인은 부주의 1,516건(46%), 전기적요인 767건(23.3%), 기계적요인 340건(10.3%) 등의 순임

- 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1,516건)는 담배꽂초 499건(32.9%), 음식물조리 315건(20.8%), 불씨방치 171건(11.3%), 쓰레기소각 166건(11.0%) 등 순임

【최근 5년('10~'14)간 11월 화재 발생 원인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분	계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가스누출	교통사고	부주의	기타(실화)	자연적	방화	방화의심	미상
건수(평균)	3,296	767	340	24	20	48	1,516	74	11	36	125	335
비율(%)	100	23.3	10.3	0.7	0.6	1.5	46.0	2.2	0.3	1.1	3.8	10.2

2

구조·구급 통계 분석

등산객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예방대책과 기온 변화로 인한 질병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로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현황】

- 최근 5년('10~'14년)간 구조활동 총 18,774백건으로 5,168백명 구조
- 11월 구조활동 1,106백건(5.9%)으로 391백명(7.5%) 구조

【 최근 5년('10~'14년)간 구조활동 현황 - 소방구조통계 】

구분 (단위:백)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건수(백건)	18,774	1,010	917	993	1,080	1,324	1,409	2,413	3,429	2,431	1,517	1,106	1,144
	인원(백명)	5,168	380	337	374	389	444	409	531	592	464	440	391	417
14년	건수(백건)	4,511	222	204	243	263	346	353	655	782	531	358	266	287
	인원(백명)	1,150	86	71	85	85	106	86	114	128	104	99	90	96
13년	건수(백건)	4,001	254	212	233	231	284	307	434	651	543	365	247	239
	인원(백명)	1,101	81	67	82	76	87	85	116	130	101	103	89	84
12년	건수(백건)	4,277	189	196	193	247	274	319	702	910	474	300	217	256
	인원(백명)	985	72	69	69	78	84	88	95	108	78	80	72	93
11년	건수(백건)	3,168	198	170	177	188	219	232	325	565	459	254	193	189
	인원(백명)	1,007	73	67	73	85	87	78	112	113	98	78	71	71
10년	건수(백건)	2,817	148	135	147	151	201	198	296	522	424	240	183	173
	인원(백명)	924	68	63	65	65	80	72	94	113	83	80	70	72

- 최근 5년('10~'14년)간 구급활동 총 7,464천건으로 총 7,706천명 이송
- 11월 구급활동 총 589천건(7.9%)으로 608천명(7.8%)명 이송

【 최근 5년('10~'14년)간 구급활동 현황 - 소방구급통계 】

구분 (단위:천)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건수(천건)	7,464	586	543	593	603	667	641	661	675	645	633	589	629
	인원(천명)	7,706	605	559	610	621	689	661	683	699	667	655	608	650
14년	건수(천건)	1,632	121	117	131	130	146	138	144	147	142	139	133	144
	인원(천명)	1,678	125	120	134	134	150	142	148	152	146	144	136	148
13년	건수(천건)	1,504	121	111	121	120	133	131	133	137	129	127	119	123
	인원(천명)	1,549	124	114	125	123	137	134	137	142	133	131	122	127
12년	건수(천건)	1,494	115	113	118	124	135	128	132	133	126	127	114	129
	인원(천명)	1,543	119	117	122	128	139	132	136	138	130	131	117	134
11년	건수(천건)	1,405	117	103	113	117	127	120	126	128	119	116	111	110
	인원(천명)	1,454	121	106	116	120	131	125	130	133	123	120	114	114
10년	건수(천건)	1,428	112	99	110	112	127	123	127	130	128	124	113	122
	인원(천명)	1,481	116	103	114	116	132	128	131	135	133	129	118	126

【분석】

- 최근 5년('10~'14년)간 연평균 구조활동 : 375,479건으로 103,351명 구조
 - 11월 평균 구조활동 22,127건(5.9%)으로 7,828(7.5%)명 구조
 - 구조활동 건수(22,127건)는 전월(30,338건)에 비해 27.1%(8,211건) 감소, 구조인원은 7,828명으로 전월보다 11%, 971명 감소

【 최근 5년('10~'14)간 월평균 구조활동 현황 - 소방구조통계 】



- 최근 5년('10~'14년)간 연평균 구급활동 : 1,492,705건/1,541,168명 이송
 - 11월 평균 구급활동 117,722건(7.9%)으로 121,604(7.%)명 구조
 - 구급활동(117,722건)은 전월(126,587건)보다 7%(8,865건) 감소,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121,604명으로 전월보다 7.1%, 9,325명 감소

【 최근 5년('10~'14)간 월평균 구급활동 현황 - 소방구급통계 】



해경활동

1 중국어선 단속 현황

【현 황】

- (허가수역) '15년 1~10월까지 일평균 141척의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조업 하였으며, 10.16일 저인망조업 재개에 따라 일일 5~600여척의 중국어선이 우리수역에서 조업 중
- 이는 동절기 성어기(12월 ~ '16.1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

【최근 3년('12~14년)간 중국어선 조업현황(해양경비안전국)】

년도	해역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	우리 수역	85,470	9,302	8,482	5,428	8,185	5,998	0	0	0	680	11,920	17,065	18,410
	NLL 북한수역	46,409	924	515	844	2,322	6,527	7,406	2,799	2,573	10,302	8,583	2,491	1,123
'13	우리 수역	80,412	13,069	3,318	4,399	3,880	3,622	0	0	197	5,621	10,374	17,051	18,881
	NLL 북한수역	33,499	495	204	667	3,491	7,570	6,248	1,674	1,135	3,437	4,418	3,079	1,081
'14	우리 수역	81,978	10,112	2,399	1,355	6,444	4,826	0	0	2,067	6,399	11,259	19,709	17,408
	NLL 북한수역	44,969	439	325	1,986	5,639	7,243	7,041	2,372	1,342	6,659	5,568	4,536	1,819
'15 (~6.22)	우리 수역	42,030	13,482	3,651	1,092	3,575	2,522	0	0	698	6,740	10,270		
	NLL 북한수역	47,930	847	306	1,321	8,283	10,539	9,544	2,851	910	6,701	6,628		
'12~14년		247,860	32,483	14,199	11,182	18,509	14,446	0	0	2,264	12,700	33,553	53,825	54,699
비 율			13%	6%	5%	7%	6%	0%	0%	1%	5%	14%	22%	22%

* 최근 3년 중국어선 총 조업척수 변화 : 12년 85천여척 → 13년 80천여척 → '14년 81천여척

- (NLL북한수역) 꽃게 성어기를 맞아 日평균 2~300여척이 조업중이며, 꽃게 성어기가 종료되는 11월까지 지속 전망

* 최근 3년('12~14년) 평균 9~11 월 日평균 100~200여척이 조업

【최근 3년('12~14년)간 NLL북한수역 중국어선 조업(일평균) 현황(해양경비안전국)】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년	30	18	27	77	210	247	90	83	343	277	83	36
'13년	16	7	22	116	244	208	54	36	114	142	103	35
'14년	15	12	64	188	234	235	77	43	222	179	151	59
'15년	27	13	51	276	340	318	92	29	223	237		
'12~14년	20	12	38	127	229	230	74	54	226	199	112	43
비율	1%	1%	3%	9%	17%	17%	5%	4%	17%	15%	8%	3%

- '15.9월기준 총 270척의 중국어선을 단속 하였으며, 최근 3년간 나포 척수는 지역별로 목포 599척(55%), 제주 166척(15%), 인천, 군산 등 순이며, 선적항별로는 요녕성 530척(48%), 산둥성 379척(35%), 절강성 등 기타 189척(18%) 등 순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현황 - 해양경비안전국】

구분	나포 (척)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침범	비고 (NLL)	구 속		담보금
		계	무허가	제한 조건 등			척수	인원	
'15.9월	270	261	36	225	9	24	40	65	87억 1,000만원
'14년	341	317	85	232	24	25	36	75	189억 9,000만원
'13년	487	453	149	304	34	40	81	183	244억 1,750만원

【지역별 나포현황 - 해양경비안전국】

구 분	계	인천	평택	태안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울산
'15.9월	270	27	-	17	25	135	51	15	-
'14년	341	34	1	23	34	167	59	23	-
'13년	487	42	-	42	32	297	56	18	-
최근3년 계	1,098	103	1	82	91	599	166	56	0
비율	100	9	0	7	8	55	15	5	0

【최근 3년('13~'15년)간 선적항별 나포현황 - 해양경비안전국】

구 분	계	산동성	요녕성	절강성	기 타
'15.9월	270	82	152	10	26
'14년	341	123	152	18	48
'13년	487	174	226	44	43
최근3년 계	1,098	379	530	72	117
비 율	100	35	48	7	11

- 최근 3년('13 ~ 15.9월)간 월별 나포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시기는 중국어선 최성어기인 동절기(11 ~ 1월)이며 총 나포척수의 50% 이상을 차지함
- 업종별로는 우리수역 허가척수가 가장 많은 저인망어선(784척) 683척 (62%), 다음으로 유자망 308척(28%), 기타 운반선 107척(10%) 등 순임

【월별 중국어선 나포현황 - 해양경비안전국】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9월	270	64	35	23	48	29	9	-	7	55			
'14년	341	35	11	19	14	14	6	-	4	20	41	90	87
'13년	487	83	28	22	48	48	5	1	5	26	85	84	52
최근3년 계	1,098	182	74	64	110	91	20	1	16	101	126	174	139
비율(%)	100	17	7	6	10	8	2	0	1	9	11	16	13

【최근 3년('13~15년)간 업종별 나포현황 - 해양경비안전국】

	계	저인망	유자망	운반선	기타
'15.9월	270	152	84	28	6
'14년	341	226	83	13	19
'13년	487	305	141	24	17
최근3년 계	1,098	683	308	65	42
비 율	100	62	28	6	4

2

해양사고 현황

11월은 해상기상 악화와 기온 하강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시기로 원해구역 조업선 및 소형어선들의 안전관리가 요구 되며, 해양사고 최소화를 위한 무리한 조업자제와 전열기 등 사용으로 인한 화재예방 사전 점검·관리가 필요

- 최근 5년 평균 선박사고는 총 1,495척 / 9,989명 발생.
-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는 총 7,479척(49,945명)이 발생하여 선박 7,184척 (96.1%) 및 승선원 49,070명(98.2%)이 구조되고, 선박 295척(3.9%) 및 승선원 875명(1.8%)이 사망(631명)·실종(244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구 분	발 생		구 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계	7,479	49,945	7,184	49,070	295	875	632	243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7	485	397	88
2013년	1,052	7,963	1,014	7,896	38	67	48	19
2012년	1,632	11,302	1,570	11,217	62	85	64	21
2011년	1,750	9,503	1,680	9,418	70	85	38	47
2010년	1,627	9,997	1,569	9,844	58	153	85	68

- 최근 5년간 11월의 선종별 사고 현황은 어선, 기타선, 예·부선 등의 순으로 발생

구 분	계	어선	여객선	유도선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관공선	기타 (모터보트, 요트 등)
척	609	415	6	3	30	8	58	0	89
비율(%)	100	68.1	1.0	0.5	4.9	1.3	9.5	0	14.7

3 연안사고

방파제 및 갯바위를 중심으로 낚시·관광 등 연안을 찾는 행락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립·추락사고 예방활동 필요

● 최근 3년간 연안사고는 2,770건(5,058명) 발생, 433명 사망

- 최근 3년간('12~'14) 연안사고 2,770건(5,058명) 발생하여, 433명 사망하고 4,625명 구조(부상 165명), 해안가갯바위·방파제를 중심으로 발생
- 최근 3년 11월중 사고는 해상·갯바위·항포구 순으로 발생
- 방파제·갯바위를 중심으로 낚시 등 활동 지속 예상, 안전사고 위험 상당

구분	건(명)	해상		방파제		항포구		갯바위		갯벌		해안가		해변 (해수욕장)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2,770(433)	643	196	206	34	264	52	275	21	85	19	315	60	888	32	94	19
'14년	747(113)	111	25	61	12	96	20	85	9	35	8	129	29	198	4	32	6
'13년	1,013(133)	266	71	70	6	91	14	98	4	30	6	79	11	349	18	30	3
'12년	1,010(187)	266	100	75	16	77	18	92	8	20	5	107	20	341	10	32	10

※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갯벌, 갯바위, 방파제, 선착장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 사고 유형으로 익수가 전체 37%(1,014건) 차지, 표류·고립·추락 순으로 발생

구분	건(명)	익수		추락		고립		표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2,770(433)	1,014	176	391	135	452	8	668	3	245	111
'14년	747(113)	274	49	123	38	150	3	134	1	66	22
'13년	1,013(133)	314	61	145	49	154	3	341	2	59	18
'12년	1,010(187)	426	66	123	48	148	2	193	0	120	71

● 최근 3년간 11월 중 연안사고는 총 133건이 발생하여 30명 사망

구분	건(명)	해상		방파제		항포구		갯바위		갯벌		해안가		해변 (해수욕장)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133(30)	41	20	9	2	23	4	35	1	1	0	19	2	2	1	3	0
'14년	45(5)	7	1	3	1	7	0	12	1	1	0	12	1	1	1	2	0
'13년	40(11)	15	8	2	1	7	2	11	0	0	0	5	0	0	0	0	0
'12년	48(14)	19	11	4	0	9	2	12	0	0	0	2	1	1	0	1	0

● 사고 유형으로 익수 (35%) > 고립 (34%) > 추락 (21%) 순으로 발생

구분	건(명)	익수		추락		고립		표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133(30)	46	11	27	13	45	0	3	0	12	6
'14년	45(5)	21	5	5	0	14	0	2	0	3	0
'13년	40(11)	11	1	10	7	14	0	0	0	5	3
'12년	48(14)	14	5	12	6	17	0	1	0	4	3

➡ 방파제 · 갯바위를 중심으로 낚시 · 관광을 즐기는 행락객 지속,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실족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와 조석시간을 인지하지 못해 갯바위에 고립되는 사고 지속 발생

* 갯바위 사고유형 (35건) : 고립 32건 > 익수 3건

** 방파제 사고유형 (9건) : 추락 7건 > 고립 1건 > 기타 1건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설물(위험표지판, 인명구조장비 함, 안전펜스 등) 확인, 안전수칙 준수 및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 계도,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

4 11월 해양(조위) 분석 및 전망

자료제공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 (조석개황) 11월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는 시기로 10월에 비해 기압이 점점 높아지고 수온이 낮아지면서 월 최대조위와 일조차가 조금씩 작아짐. 보름달이 그믐달보다 조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그믐달 : 11월 12일 02시 47분, 보름달 : 11월 26일 04시 44분

- (조위 및 조차) 최고조위와 최저조위는 26일과 27일에 발생하며 10월에 비해 다소 낮음, 최대 일조차는 26일과 27일에 발생하는데 최소 일조차는 남해 동부해역과 남해서부해역 일부에서 4일, 나머지 해역에서 5~6일에 발생함

【2015년 11월 중 해역별 주요지점 조위 및 일조차】

권역	지점	조위(cm)				일조차(cm)*			
		최고		최저		최대		최소	
		높이	일시	높이	일시	크기	날짜	크기	날짜
황해 중부	인천	925	26일 17:08	-25	27일 11:40	949	27일	291	05일
	평택	948	26일 16:54	-5	27일 11:33	951	26일	287	05일
	태안	766	27일 17:19	-12	27일 11:01	778	27일	260	06일
	보령	771	26일 15:37 27일 16:20	5	27일 10:41	766	27일	266	06일
황해 남부	군산	725	27일 16:07	-6	27일 10:15	731	27일	251	06일
	영광	692	27일 15:43	0	27일 09:37	692	27일	263	05일
	목포	496	27일 15:17	-53	27일 07:52	549	27일	204	05일
	흑산도	374	27일 14:48	-9	27일 07:51	383	27일	150	05일
남해 서부	진도	395	26일 11:13 27일 11:57	-30	27일 05:49	425	27일	149	05일
	완도	395	27일 10:58	-5	27일 04:49	400	27일	126	05일
	여수	360	27일 09:58	4	27일 03:24	356	27일	105	04일
	광양	394	27일 10:00	1	26일 02:46 27일 03:28	393	27일	113	04일
남해 동부	거제도	211	27일 09:35	-9	27일 02:54	220	27일	68	04일
	통영	281	26일 09:01 27일 09:45	-1	26일 02:25 27일 03:08	282	26일	83	04일
	마산	197	26일 08:59 27일 09:43	-12	26일 02:14 27일 02:57	209	26일	59	04일
	부산	134	26일 08:30 27일 09:13	-5	26일 01:58	139	26일	41	04일
제주	제주	293	27일 11:39	11	27일 05:22	282	27일	90	05일
	성산포	260	27일 10:46	-10	27일 04:15	270	27일	78	05일
	서귀포	305	27일 10:47	-7	27일 04:12	312	27일	96	05일
	모슬포	284	27일 11:29	-14	27일 04:54	298	27일	94	05일

* 일조차 : 연이어 나타나는 고조와 저조의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값

Ⅲ 최근 발생한 주요재난

1 경기 용인 위험물저장시설 화재

개 요

- 일 시 : 2015. 10. 7.(수) 21:37 ~ 03:05(초진), 03:43(완진)
* 선착대 : 보정119안전센터 3.9km(9분) 및 본서 16.7km(24분)
- 장 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269 『(주)안전물류센터』
- 건물구조 : 양식 철근 연화조 6동(3/0층), 연면적 2,784.54㎡
- 원 인 : 조사 중

< 사고경위 >

- ◇ 차량운전자가 검은 연기를 목격하고 최초 신고
- ◇ 위험물옥내저장소에서 발화되어 주변 옥외저장소 등으로 급격히 연소확대
※ 위험물 저장현황(11개소) : 제4류위험물 톨루엔 등 24종 4,238,400ℓ

피해상황

- 인명피해 : 경상 1명(남/54세, 파편에 맞아 두부출혈)
- 재산피해 : 건축물 6개동 중 3개동 및 유류저장시설 등 소실

현장활동 및 조치사항

- B·H 등 보고 및 유관기관 상황 전파, 국민안전처장관 긴급지시사항 전파
- 연소확대 및 인명피해 방지, 현장대원 안전사고방지 철저
- 대응 1단계(22:03) → 대응 2단계(23:15) → 현장대원 안전지대 대피명령(23:45)
- 화점 1km 이내 2개 마을주민 긴급 대피명령(22:20)
- 오산 1·2리 주민 200명, 능원초교 및 마을회관으로 대피, 전원귀가(03:20)
※ 동원소방력 : 11개서(중앙119구조본부) 526명, 화학차 18대 등 장비 86대

☐ 위험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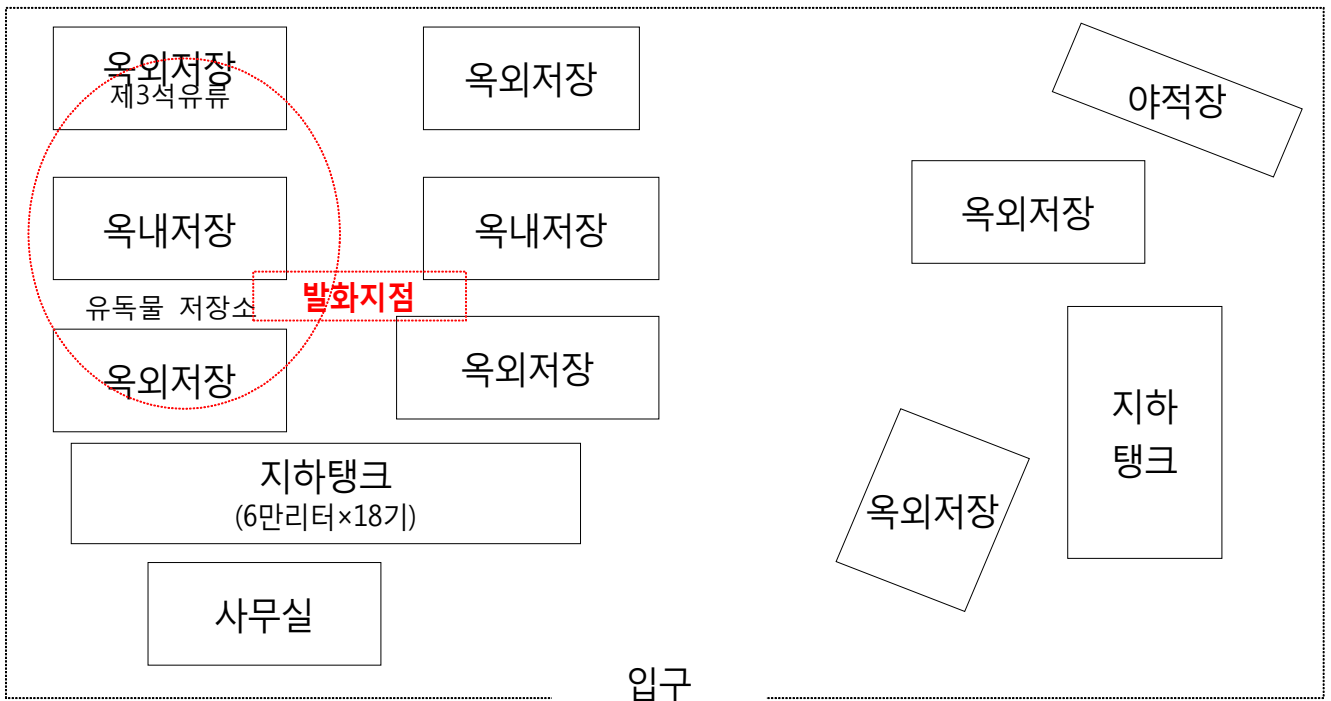
【단위 : ℓ】

류별	품명	옥내저장 (2개소)	옥외저장 (7개소)	지하탱크 (2개소-29기)	계
제4류	제1석유류	54,400		1,210,000	1,264,400
	알콜류	12,800		180,000	192,800
	제2석유류	40,000	240,000	640,000	920,000
	제3석유류		1,014,200	340,000	1,354,200
	제4석유류		442,000		442,000
	동식물류		65,000		65,000
합 계		107,200	1,761,200	2,370,000	4,238,400

☐ 현장사진



☐ 평면도



2 경북 상주터널 내 차량화재

개 요

- 일 시 : 2015. 10. 26.(월) 12:05 ~ 13:31(완진)
- 장 소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하행선)』
- 원 인 : 적재물(시너) 낙하 및 폭발

< 사고경위 >

- ◇ 시너(18ℓ×380개)를 실은 화물차(3.5톤)가 터널내에서 차선 도색공사로 정체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 급제동하여 타이어 펑크로 차량이 중심을 잃고 터널 벽면을 충돌, 도로에 떨어진 시너통 120여개에 스파크로 착화 발화
 - ◇ 신나(18ℓ× 380개)를 실은 화물차량은 충돌 후 계속 운행하여 터널 밖으로 대피
- * 상주터널 : 길이 - 상행 1612m · 하행 1,685m, 폭 11.2m, 높이 7.7m / 2004년 개통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부상 20명(중상1-전신화상, 경상19-연기흡입),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 중상자 중앙119구조본부 헬기로 대구 화상전문병원(푸른병원) 이송
- 재산피해 : 70백만원(부동산 50백만원, 동산 20백만원)
 - ※ 차량9대 파손(전소 3, 부분소 1, 그을림 5)

현장활동 및 조치사항

- 동원소방력 : 6개 소방서(소방차량 42대 123명), 헬기 2대(중구본 1, 경북1)
- 현장도착 즉시 인명구조 및 터널 내 차량 긴급대피 지시
 - ※ 양방향 터널통제 후, 선착대 인명구조 및 연소확대 방지주력 / 옥내소화전 활용 진압
- B·H 등 보고 및 유관기관 상황 전파
- 현장대원 안전사고 방지 및 인명검색 철저 지시 / 경북본부장 현장지휘
- 현장 언론브리핑 실시(15:00, 상주서장)

현장사진



3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항 평진호 침수사고

☐ 사고개요

- 일 시 : 2015. 9.27(일) 07:27경
- 장 소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항 수협앞 부두 609평진호
- 원 인 : 어선 정박 중 기관실 밸브 폐쇄 등의 조치 미비, 어선 종사자의 정박어선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사고
- 당시기상 : E 6-8m/s, 0.5m, 맑음(3해리)

☐ 사고선박 제원

선 명(선적)	총톤수	승선원	어업허가	선 종
609평진호	26톤	-	외끌이 저인망	어선(연승)

☐ 피해현황

- 물적 : 선체(기관실) 침수 ※ 인적피해 없음

☐ 주요 조치사항

- 성산안전센터 현장 도착 및 배수 작업(안전센터 직원 4명 배수펌프 이용)
- 122구조대 침수선박 파공 부위 확인 차 잠수 ※ 파공부위 발견 못함

☐ 발생위치 및 현장사진



1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개요

- 일 시 : 2014. 11. 09.(일) 13:53 ~ 15:34(101분간)
※ 개포119안전센터 1.7km (3분), 본서 : 강남소방서 4.5km(7분)
- 장 소 :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478 구룡마을7, 8 지구
- 구 조 : 가건물 1층(떡솜, 합판, 스티로폼으로 다량 밀집)

< 사고경위 >

- ◇ 구룡마을(화재경계지구) 고물상 앞 가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1명(남/71세), 7-B지구 46동 7호 거주
- 재산피해 : 2억1천6백만원(부동산 : 9천만원, 동산 : 1억2천6백만원)
※ 총 10,991㎡ 900㎡ (16개동 63세대)소실
- 이재민현황 : 총 16개동 63세대 136명
※ 개포중학교 : 40세대 60명 / 마을회관 : 23세대 57명 / 친척집 : 19명

소방활동 및 조치사항

- 인 원 : 344명(소방 198, 도청 14, 시청 65, 경찰 47, 기타 20)
- 소방력 도착 연소저지 및 인명구조 활동전개 / 강남소방서장 현장지휘
- 안행부 · BH 등 유관기관 상황전파
- 인원 : 688명
- 장비 : 77대(지휘2, 펌프13, 탱크29, 구급4, 구조6, 굴절1, 고가1, 기타16, 헬기5)



2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화재

개요

- 일 시 : 2014. 11. 27(목) 02:31 ~ 03:25(54분)
- 장 소 : 하동군 화개면 탑리 754-1 『화개장터』
- 건물현황 : 한식 초가지붕 3개동 및 난전 2개동 연면적 574.10m²
* 한식 초가지붕 3개동 460.10m²(점포 22칸), 난전 조립식 초가지붕 2개동 114m²(19칸)
- 원 인 : 장터 상가에서 최초 발화(원인 조사중)

< 사고경위 >

- ◇ 장터 상가에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한 화재로 정확한 원인은 조사중 * 화개 지역대 도착 시 최성기 상태임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73,000천원(초가지붕 3개동 460.10m²전소, 점포 약22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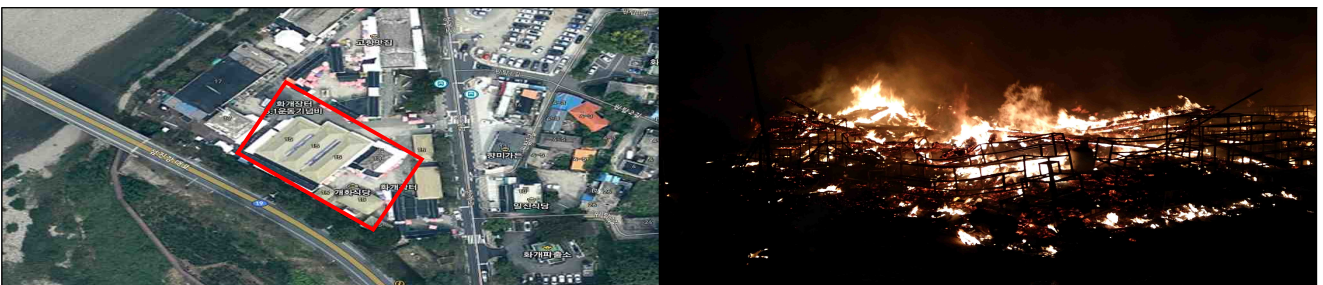
동원소방력

- 인 원 : 36명 (소방 32, 경찰 2, 기타 2)
- 차 량 : 15대 (지휘 1, 펌프 6, 탱크 3, 구조 1, 구급 1, 기타 3)

현장활동 및 조치사항

- 현장도착 즉시 인명검색 및 연소확대 방지 주력
* 선착대 : 화개지역대 0.5km(2분), 본서 : 하동소방서 33km(50분)
- BH·국정원 등 유관기관 상황전파
- 출동대원 안전사고 방지 철저 지시 / 하동소방서 전직원 비상소집

현장 사진



3 부산, 방파제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 사고개요

- 일 시 : 2014. 11. 17(월) 01:08경
- 장 소 : 부산시 영도구 소재 테트라포드
- 원 인 : 피해자가 음주 후 테트라 포드 산책 중 추락

☐ 피해현황

- 인적피해 : 사망 1명
- 물적피해 : 없음

☐ 주요 조치사항

- 순찰정 및 안전센터 현장 이동지시
- 영도안전센터와 119구조대 합동 대응
- 육상으로 인양 완료 후 병원으로 후송

☐ 사고현장 사진



1. 산악사고 예방요령

산에 오를 때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친다.
- 하루 8시간을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비축한다.
- 일행 중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한다.
- 될 수 있으면 30킬로그램 이상의 짐을 지지 않는다.
- 배낭에는 기상이변 등을 대비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 축전지), 상비약품을 준비하고 손에는 될 수 있으면 물건을 들지 않는다.
-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성이 좋은 것을 신는다.
-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섭취한다.
-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는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확인한다.
- 등반로 외의 산행을 삼가고,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여 능선으로 올라간다.
-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고 안전하게 걷는다.
-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 처음 몇 차례는 15~20분 정도 걷고 5분간 휴식하고, 차츰 30분 정도 걷고 5~10분간 휴식한 다음 산행에 적응이 되면 1시간 정도 걷고 10분간씩 휴식하는 것이 좋다.
- 산행 시에는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여 현재 위치를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안전하게 디딘다.
- 썩은 나뭇가지 풀, 불안정한 바위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않는다.
- 급경사 등 위험한 곳에서는 보조 자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산악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3C)
 - 1단계 : 위급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Check)
 - 2단계 : 도움을 요청하는 것(Call)
 - 3단계 :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Care)
- 구조 요청시 꼭 알려야 할 정보
 - 응급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 /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 부상자의 상태 정도 / -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 -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부상자 조사와 응급처치 요령
 - ① 의식확인 ② 호흡확인 ③ 맥박확인 ④ 출혈확인 ⑤ 얼굴색
 - ⑥ 체온·피부상태 확인 ⑦ 골절확인 ⑧ 구토 등 주변상황 확인 ⑨ 응급처치
 - ⑩ 기도개방 ⑪ 구조호흡 ⑫ 심폐소생술 ⑬ 충격예방처치
 - ⑭ 지혈 ⑮ 상처·골절 처치

산악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1. 산행 전에 산행 코스,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2. 출입금지구역(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샛길 등)은 출입하지 않는다.
3. 기상특보 때는 산행을 금하고, 이동 중인 탐방객은 빨리 하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4. 낙뢰 예보가 있을 때 산행을 삼가 한다.
5.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산행 계획을 수립한다.(절대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는다)
6. 충분한 경험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는 암릉·암벽 등반을 하지 않는다.
7. 폭우로 수량이 불어난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않는다.
8. 산행 전·후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푼다.
9. 계절별로 장비와 복장을 갖춘다.
10. 될 수 있으면 단독 산행을 피한다.

2. 산불 발생시 행동요령

산불 예방 요령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큰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입산 시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산림과 연결된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결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는다.

산에서 산불을 발견한 때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불길에 휩싸일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것이 없는 곳, 도로·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굽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때

-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를 이용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준다.

산불 진화 참여 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 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 도구 (괭이, 갈퀴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 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젊은 사람이 진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산불 진화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 산불신고 : 119,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3. 전기장판 안전사고 예방요령

-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용품 구입 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한다.
- 온도조절기(controller)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깔아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 장판에서 발생한 열이 축적되면서 장판의 내부온도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 전기장판을 라텍스 재질의 침대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라텍스는 열에 약하고 인화성이 높아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이 크다.
-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 플러그를 뽑는다.
- 제품을 사용할 때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 전기장판은 접어서 사용하면 내부에 있는 전선이 끊어지거나 얽혀 합선(단락) 및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다.
- 제품 표면에 물을 쏟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한다.
 - 전기장판 속에 물이 들어가서 전원부에 닿으면 감전 또는 누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주의한다.
- 제품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제품을 분해하지 말고 A/S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4. 바다낚시(갯바위·방파제) 사고예방 요령

-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들물 시간 알람을 설정 미리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위험구역에 비치된 각종 안내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 사고위험이 높은 테트라포드, 갯바위에서 낚시는 자제한다.
- 만일에 사고에 대비해 2인 이상이 함께 활동을 한다.
- 낚시 도중 수시로 주변 상황을 살핀다.
- 테트라포드, 갯바위 등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발(안전화)을 착용한다.
-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갯바위 등에서 낚시를 하지 않는다.
-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호루라기나 랜턴 등을 휴대하고 체온 보온용으로 담요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 이동할 때는 몸을 가볍게 하고, 짐을 작은 부피로 나누어 담는다.
-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행선지와 일정을 미리 알려준다.

이슈재난 관련 보도	
10월01일(목)	<p>국내 첫 메르스 환자 퇴원...29일 자정 공식 종식 예정(연합뉴스 등)</p> <p>그동안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환자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80번 환자가 2차례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이날부터 28일 뒤인 10월 29일 자정까지 메르스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메르스 사태는 종식</p>
10월03일(토)	<p>초강력 엘리뇨...내년 봄까지 가뭄(KBS)</p> <p>올 들어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예년의 절반 수준, 500mm 넘게 부족 비가 적어진 원인은 태평양 바닷물이 데워져 생기는 기상현상, 즉 엘리뇨의 영향으로 분석됨</p>
10월04일(일)	<p>구제역·AI 살처분 가축 사체, 비료로 재활용(뉴시스)</p> <p>'농식품부, 지금까지 브루셀라병 등 5종에 대해서만 열처리 등을 통한 사체 재활용을 허용해 왔지만 구제역과 AI 등 44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축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 개정</p>
10월05일(월)	<p>보건복지부,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구성·운영(연합뉴스 등)</p> <p>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과 관련,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손실보상 규모를 산출하여 심의·의결할 예정</p> <p>*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위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 손실보상 종료시까지 운영</p>
10월06일(화)	<p>'재난위험' 특정관리대상시설 18만곳 일제조사(뉴시스)</p> <p>국민안전처, 지자체 및 외부자문단과 합동조사반을 편성, 11월 30일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18만3,598곳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p> <p>* 특정관리대상시설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건축물</p>
10월07일(수)	<p>당정, 13일 정책협의회...가뭄극복 종합대책 마련 (KBS 등)</p> <p>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 국토부·기재부·농식품부·환경부 등 고위공무원 참석, 가뭄실태 점검과 안정적 수자원 확보방안 제시</p>
10월08일(목)	<p>황 총리, 지역축제 보험가입 의무화...선사문화축제장 안전점검 (뉴스 1)</p> <p>10월 8일, 제20회 강동 선사문화축제 (10.9~11) 안전대책 현장점검 시, 앞으로 지역축제 안전계획 수립대상 확대와 화재·상해 등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키로...</p>



이슈재난 관련 보도

10월 09일(금)	어린이보호구역의 20분의 1 실버존, 사고 위험 증가(KBS) 노인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670곳에 불과해 1만 8천개 어린이보호구역의 20분의 1 수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분의 1이 노인 * '14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1천 8백여명, OECD 평균의 4배 수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속도제한·과속 방지턱·적색포장·방어벽 설치 등 필요
10월 11일(일)	정부, 충남 서부지역 가뭄 긴급지원 나서...(연합뉴스) 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 등 제1차 물관리협의회 개최 「관계부처 가뭄대책 TF」 구성·운영(국민안전처 주관),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10월말 조기 착공, 절수지원제 시행, 「충남 서부권(보령댐) 가뭄대응 TF 운영」(국토부 주관), 시·군 관리 저수지 230여개 추가 준설 위해 100억원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10월 12일(월)	국민안전처, 항만·화학공장 안전관리 미흡...170여건 적발(KBS)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8.12)를 계기로 항만과 화학공장 등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7곳 안전점검(8.18~28) 결과, 법률위반이나 안전시설 미흡 등 총 174건 적발, 이 중 149건(86%) 개선 완료, 나머지 25건도 계획 수립·추진중
10월 14일(수)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되면?...비상 구역 30km로 확대(YTN) 과거에는 시민 대피 등 비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범위를 원전 주변 8km로 설정했지만, 올해 5월부터 최대 30km로 확대
10월 15일(목)	“현장에서 답 찾는다”...국민안전처, 장관 현장점검 TF팀 구성(뉴시스) 사고가 터진 후 현장을 찾아 뒷북 처방을 쏟아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현장의 위험 요소를 장관이 직접 체험하고 정책에 반영
10월 19일(월)	국민안전처-서울시, 석촌호수 안전관리 전담팀 구성(연합뉴스) 국민안전처장관, 19일 석촌호수와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 방문 점검 국민안전처는 서울시, 롯데, 전문가가 참여하는 석촌호수 주변 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안전관리실태 계속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
10월 21일(수)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월 1만건 육박(아시아경제 등) 전신고제도 시행('14.9.30) 이후 1년간 5.4만건 접수되어 90%(48,820건) 처리완료, 그중 38,755건(80%) 수용처리, 사례별로는 시설안전분야가 38%로 1위 지난 2월 6일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77만여명 설치, 16만 4천명 회원등록) 출시 이후 국민들의 안전신고가 최근 들어 월 1만건에 육박하는 등 급증 추세
10월 25일(일)	K-water, 가뭄 극복 '대토론회' 개최(중부매일 등) 6일 보령시 웨스트피아에서 지역주민, 정부·지자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와 함께 충남 서부 지역 가뭄극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보령댐 운영현황과 전망, 백제보~보령댐 도수로 공사 추진현황 등 4개 주제 발표·토론
10월 26일(월)	서울시,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와 관리기준」 제정(연합뉴스) 공공 환기구를 사람과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교통섬, 중앙분리대 등)하는 등 공공 환기구 설계부터 제작·관리까지 적용 기준 마련



사회재난 관련 보도

10월02일(금)	주요 안전점검에 실명제 추진... 신뢰도 상승 기대(국민일보)
	법에 규정된 주요 안전점검에 모두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 165종 점검 내용과 함께 점검자 실명 기록, 관리하는 '안전점검실명제'를 추진
10월02일(금)	메르스 마지막 환자 완치, 오는 29일 종식 선언(MBC)
	메르스 마지막 환자 완치 판정, 4주 더 지켜본 뒤에 10.29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예정
10월04일(일)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안전정책혁신 모니터단 출범(연합뉴스)
	각 자치단체에서 선발된 안전 정책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은 재난안전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으로 구성 안전관리 실태문제 파악 및 안전정책 아이디어 제안
10월07일(수)	지하철 스크린도어 오작동 잦아(아주경제)
	서울메트로 1~4호선 사고발생 빈번, 스크린 도어 설치 121고서 하루 평균 33건 발생, '감지센서 오작동' 가장 많이 발생, 먼지털기 등 허술, 안전점검 미흡
10월07일(수)	또 쓰러진 크레인... 20년 된 노후 기종 휘어져(KBS)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휘어져 인부 1명 부상
10월08일(목)	박인용 장관 "19일 석촌호수 직접 가서 안전점검"(연합뉴스)
	국민안전처가 석촌호수 수위 저하 현상을 놓고 제기된 안전성 문제를 다시 점검
10월13일(화)	완치 판정 메르스 마지막 환자, 다시 양성(동아일보)
	고열 재입원, 감염력은 낮은 것으로 예상, 가족 등 129명 자가격리, 능동감시 종식선언 29일서 다음 달로 미뤄질듯
10월13일(화)	9살 초등생, 아파트 지하주차장 채광판 틈 추락 사망(MBC)
	9살 초등학생이 아파트 공원에서 놀다가 갑자기 채광시설 플라스틱판 사이로 빠져 지하 주차장으로 추락 사망
10월15일(목)	운반 중 가스 새면서 '핑'... 트럭 위 LP가스통 폭발(KBS)
	LP가스통을 실어 나르던 트럭에서 일부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면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음
10월18일(일)	한양대 구리병원서 이산화탄소 누출... 7명 경상(연합뉴스)
	구리시 한양대병원 지하 2층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7명 이산화탄소에 노출돼 가벼운 호흡곤란 증세



사회재난 관련 보도

10월 19일(월)	수확철 전국 농기계 사고 속출... 올해만 56명 사망(연합뉴스)
	가을 수확철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 속출, 9월 말까지 농기계 사고로 23명 사망
10월 26일(월)	"사람잡는 싱크홀 찾아라" 고주파 X선 땅속을 훑다(서울신문)
	서울 시 버스에 16개 지표투과레이더 탑재한 국내유일의 동공탐사차 운영, 반사파 분석해 동공 여부 즉시확인
10월 27일(화)	과적하고 안전거리 안지키고... 상주터널서 '시너 트럭' 폭발(조선일보)
	26일 오후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 터널 안에서 화재 발생, 시너를 과적해 달리던 트럭이 터널 안 차량 정체를 뒤늦게 발견하고 운전대를 꺾다가 터널 벽에 부딪히며 시너 통을 떨어뜨려 화재



자연재난 관련 보도

10월 01일(목)	"해일발생전 대피장소 봐둬야" 국민안전처 행동요령 공개(연합)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해일 발생 전, 해일 발생 시, 대피를 못했을 때로 나눠 행동요령 공개
10월 02일(금)	중부 역대 최저 강수량 '최악의 가뭄' 장기화 우려(MBC)
	중부지방 대다수 지역의 강수량 관측 이래 최저치, 가뭄이 장기화될 가능성
10월 07일(수)	최악의 가뭄 내년 봄까지(서울신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가을 가뭄이 내년 봄까지 이어질것으로 전망
10월 11일(일)	가뭄 대책 관계 차관회의, 충남 가뭄 해갈 대책 모색(뉴시스1)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오후 '가뭄 대책 관계 차관회의'에서 충남도 가뭄 극복을 위해 231억 긴급 투입
10월 20일(화)	한반도 미세먼지에 갇혔다(조선일보)
	중국서 오염물질 넘어오고 전국적인 가뭄까지 겹쳐 중부지방 곳곳에 주의보, 환경부 "가을 겨울엔 심각 미세먼지 예보 귀기울여야"
10월 22일(목)	가뭄 비상' 충남지역에 30억원 긴급투입(시정일보)
	저수지 준설, 댐간 연계 운영, 물절약 운동 등 대책마련
10월 27일(화)	완도 해역서 규모 2.1 지진... 전남서 올해 세번째(뉴시스)
	26일 11시29분 전남 완도군 남동쪽 26km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




소방재난 관련 보도

10월01일(목)	"말벌 집 없애주세요" 하루 7건 출동(강원일보)
	무더위가 본격 시작된 8월부터는 하루에 7건 이상 출동, 엘리노 현상으로 기온이 급증해 말벌이 왕성하게 번식 한 것으로 분석
10월03일(토)	골든타임 5분' 때문에 소방차 교통사고 5년새 50% 급증(파이낸셜)
	최근 5년 새 50%이상 소방차량 교통사고 증가, 운전 전문 소방관은 줄어든 반면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해서 운전을 서두르기 때문
10월03일(토)	소방관, 경찰관 폭행한 50대 음주운전자 영장(연합뉴스)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정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
10월07일(수)	119구급차에서 '병원성 세균'검출... 오염 취약(YTN)
	119구급차 안에서 여러 종류의 세균이 발견, 실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세균도 검출
10월08일(목)	"터질 게 터졌다" 유해물질 저장고 화재, 예견된 사고(MBC)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에서 큰불, 유해 화학물질이 가득한 곳, 안전점검에서 여러번 경고 받고도 아무 조치 없어
10월12일(월)	불 늦게 꺾었다고 고소... 법구조 못 받는 119(이데일리)
	피소건수 3년새 4배 급증, 소방전담 변호사는 태부족 대부분 '나홀로 소송'에 끄끙
10월12일(월)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경산서 개최(국민일보)
	14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제16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
10월16일(금)	20년 넘은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 부실 투성이(건설경제)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떡통'소화기, 화재감지기 수두룩, 화재 땀 큰 피해 우려
10월20일(화)	요양원 건물 불... 이불로 싸고 업어서 대피(KBS)
	새벽 경북 안동의 한 요양원 건물에서 화재 20여분만에 진화, 40여명 연기 마셔 병원 치료
10월27일(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폭행한 5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 구급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5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
10월28일(수)	법원 구급차에게 양보 았다가 사고 나면 승용차 100% 책임(조선일보)
	긴급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100% 과실 책임 있다는 법원판결



해양재난 관련 보도

10월01일(목)	서해 위도 해상서 해경 1명 실종(연합뉴스) 해상출동경비근무를 서던 해양경찰경비정에서 40대 경찰관 1명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
10월02일(금)	슈퍼문'에 강풍까지... 서해안 지역 폭풍해일 주의보! 달과 지구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 문' 현상 때문에 서해안에 폭풍해일 주의보 발효
10월02일(금)	부산 목도 인근 낚시배 화재... 5명 모두 구조(YTN) 2일 오후 5시 44분 경 부산 사하구 목도 인근 해상 낚시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 정모(74)씨 등 5명 부산해경 경비함정 구조
10월5일(월)	인천 팔미도 유람선 접안중 충돌...72명 부상(연합뉴스) 인천 중구 팔미도에서 접안중이던 승객 100여명을 태운 유람선이 선착장에 충돌해 탑승객 70여명 다쳐
10월8일(목)	EEZ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4척 잇따라 나포(연합)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중국 라오닝성 금주 선적 유망어선 요급어 등 2척 나포
10월12일(월)	거제 해상서 96명 태운 유람선 한때 표류... 전원 무사(연합뉴스)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관광객 96명을 태운 유람선(29t급)이 기관고장으로 표류,
10월13일(일)	"중어선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해경 해양주권 수호 다짐(연합뉴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0월15일(목)	부산항 수출입화물 무자격 검량·검수사 무더기 적발(연합뉴스) 부산해양경비안전서 무자격 검량, 감정, 검수사 36개 업체 적발 79명 불구속 입건
10월16일(금)	진도 해상서 자망어선 좌초... 15명 모두 구조(뉴시스) 진도 앞바다에서 15명이 탄 자망어선(35t, 목포선적)이 암초에 걸려 좌초, 목포 해양경비안전서 15명 구조
10월17일(토)	바닷가 블랙홀, 방파제 '테트라포드'서 또 추락사(MBC) 부산 영도구 해안가에서 박모(54)씨가 낚시하다 발을 헛디뎠다 테트라포드 틈 사이로 추락해 숨져
10월21일(수)	제주해경 불법조업 중어선 단속전담, 22척 나포(연합뉴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중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8일간 운영, 중국어선 22척 나포
10월22일(목)	부산불꽃축제 보러 배 323척 출항 예정... 안전관리 비상(연합뉴스) 제11회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24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앞 해상에 관람객 1만1천명을 태운 선박 323척 출항 예정(여객선 5척, 유람선 18척, 요트·보트 300척)
10월25일(일)	부산항내 수상레저 해상사고 크게 늘어나(연합뉴스) 수상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산항 내에서 발생하는 수상레저기구 관련 해상 조난사고가 크게 늘어 지난해 보다 73% 증가(30건0>52건)

이슈재난 관련 보도	
	<h2>이슈재난 관련 보도</h2>
11월4일(화)	재난정보 한눈에 ‘첨단 상황실’ 개발...해결과제는? (MBC) <p>국립재난안전연구원, CCTV와 위성영상, SNS정보 등 각종 빅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 한눈에 재난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스마트 빅보드’ 프로그램 개발, 그러나, CCTV 등 지자체와 부처별 소관 정보들이 아직 연동돼 있지 않고, 시스템 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SNS 정보는 위치공개를 설정한 것만 활용할 수 있어 상용화가 되기까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p>
11월6일(목)	국토부, 불량샌드위치 패널 다수 적발 (KBS) <p>국토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지붕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 건축현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불량 샌드위치 패널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시공 및 공사중지 명령, 22개 건축현장 30개 샘플 중 23개가 부적합 판정</p>
11월9일(일)	잇을 만하면 사고... ‘이중 위험사회’ 된 대한민국(SBS) <p>“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과거형 재난과 정보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미래형 재난’이 함께 발생하는 ‘이중위험사회’ 임”. SBS와 서울대 사회발전 연구소가 분석한이중 위험사회’의 원인은, 외부의 시선에서 제도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문제해결방식 때문임. 위험사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여 사회전반의 공공성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 함</p>
11월10일(월)	예산 때문에... ‘붕괴위험’ 노후주택 안전점검 뒷전으로 (MBC) <p>지은 지 30년이 넘어서 자칫 붕괴될 위험이 있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전국에 2만 동... 안전점검이 시급하지만 예산을 누가 댈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 44년 된 서울 정릉의 한 아파트 18년전 안전등급 E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관할 구청이 설치한 철제 울타리가 전부...</p>
11월11일(화)	서울 5~8호선 지하철역 승강기 54대 추가 설치키로... (SBS) <p>서울도시철도공사, ‘승강기 안전의 날(11.11)’을 맞아 5~8호선 24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10대와 에스컬레이터 44대를 2016년 초까지 추가 설치 할 계획, 11일 마장역(5호선)과 청담역(7호선)에서 임직원 휠체어리프트 이용 체험 행사 실시</p>



이슈재난 관련 보도

11월11일(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인명구조용 ‘사이보그 바퀴벌레’ 개발 (KBS)
	대형 건물 붕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존자가 내는 소리를 인식해 수색을 돕는 ‘사이보그 바퀴벌레’ 개발, 바퀴벌레 등에 소형 마이크를 달아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낼 수 있어 마치 소형 인명 구조대원처럼 이용 가능
11월14일(금)	동아시아 정상회의, 신속재난대응 등 공동성명 채택(KBS)
	미얀마에서 열린 제9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신속 재난 대응 및 에볼라 확산 대응 등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박대통령은 아시아는 자연 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 만큼 재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
11월16일(일)	박대통령, “생명·안전 무관한 규제 2017년까지 20% 축소”(SBS)
	호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자유토론에서 박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를 금년까지 10%, 2017년까지 20%를 일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규제개혁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소개
11월17일(월)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내일 출범... 위원장 전병헌 (SBS)
	올해 들어서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논의할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 4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
11월18일(화)	국내 최초 산악사고 지도... 우리 동네 산은? (KBS)
	KBS 데이터 저널리즘팀, 2013년 한해동안 119구조대가 출동한 전국 산악사고 위치와 사고개요 등 6천7백여건을 분석하여 국내 최초로 산악사고 지도 작성, 설악산 국립공원 등의 산악사고 정보를 위성·지형지도로 쉽게 확인 가능
11월18일(화)	공해 주범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지역 지정 추진(KBS)
	환경부, 수도권내 일정 지역을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지역으로 지정 추진
11월20일(목)	전국 시도지사, 담배에 ‘소방안전세’ 도입 촉구(KBS)
	시도지사협의회, 화재원인의 16%가 담배이므로 담배세제 개편 시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 도입을 촉구



사회재난 관련 보도

11월1일(토)	전국자연휴양림서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아시아투데이)
	산림청,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하반기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 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이행여부와 상황별 대응 능력을 점검할 계획, 이용자 안전을 위해 산림휴양시설 안전관리지침 정비 사업도 추진할 예정
11월2일(일)	충북도, 재난대비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뉴시스)
	겨울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11개 시·군에 시달하고 都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시·군별 안전점검계획 및 이행여부 점검 등
11월2일(일)	전남도, 어선 인명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뉴스1)
	상시 위험에 노출된 어선원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초단파 무선전화(VHF)*와 자동소화시스템을 어선에 보급하여 조난시 신속한 인명구조 등에 활용
11월3일(월)	안행부,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안전검사 강화 (이데일리)
	15년 이상 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기준 강화, 안행부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마련하고 3년마다 안전검사 시행 및 중요 기능이나 구조 변경 시에는 수시로 검사를 받도록...
11월3일(월)	교육부, 안전정책 총괄부서 신설 (헤럴드경제)
	교육부는 일선 학교와 대학의 안전사고, 교육시설 안전 등 교육 전 분야에 걸친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교육안전정책관(과)을 신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 담당 업무를 이관해 초중등과 대학 등 교육분야 안전사고를 예방·대응.
11월4일(화)	산림청 누리집과 네이버 지도 통해 폐쇄 등산로 안내 (아시아투데이)
	산림청, 산불과 산악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주요 산불 취약 등산로 출입을 금지하고, 지자체 등 각 기관별로 개방·폐쇄하는 등산로를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네이버 지도(map.naver.com)를 통해 안내서비스 실시
11월5일(수)	안전행정부, 학교 특별안전진단 기간 운영... '안전신문고' 참여 독려(헤럴드경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과 함께 11월 한 달 간 전국 초·중학교 대상 '학교 특별안전진단' 실시. 특히,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생활 주변 위험요소개선에 직접 참여하도록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도록 함
11월5일(수)	한·중·일 지방정부 '재난관리 교류회의' 인천서 열려(연합뉴스)
	4일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과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 공동 주관으로 인천시 및 대지진을 겪은 중국 쓰촨성 장유시와 일본 센다이시 미야자기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 한·중·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사례발표와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재난관리 교류회의' 개최



사회재난 관련 보도

11월6일(목)	산림청, 자연휴양림 재난·안전관리 대폭 강화 (아시아투데이)
	산림청은 자연휴양림을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진단, 모의훈련 정례화 및 캠페인, 노후시설 정비, 예산·인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 재난·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혀...
11월7일(금)	국토부, 환기구 2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첫 가이드라인(YTN)
	국토부는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 높이는 2m 이상으로 설치, 기존 설치된 2m 이하 환기구는 차단펜스와 경고판 부착, 하중은 300~500kg를 버티고 미관을 고려해 투시형 벽으로 설계. 환기구 관리의무가 건물주에 있음을 지자체에 행정지시.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사항 이어서 실제 환기구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11월7일(금)	방송통신위원회, 7일 재난방송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머니투데이)
	방통위는 7일(오후 2시) 방송사·시민단체·학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재난방송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예정. 세월호 참사 방송 과정에서 방송사간 취재경쟁 및 오보나 사생활 침해 등 문제점 발생. 개선안에는 ▷재난방송 정의의 명확화 ▷재난의 유형·특성을 고려한 방송사 범위 조정 및 방송형태 지정 ▷'재난방송 준칙' 준수 확보 ▷주관방송사의 권한·책임 강화 등의 내용 포함
11월8일(토)	농기계 사고 사망자 5년새 2배 증가... 70대 이상이 절반 (경향신문)
	교통안전공단의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 분석 결과, 사망자수 2배 증가(2009년51명 → 2013년 99명), 야간운행 · 음주운전이 주요원인, 전복(35%), 도로이탈 (27%) 순으로 발생, 지난 해 사망자 99명중 70대 이상 48명(49%), 60대 23명(23%)으로 고령자의 사고가 높아.
11월8일(토)	2014 대한민국 사회안전박람회, 소방훈련·범죄예방... 체험하며 배운다 (한국경제)
	안행부와 경기도, 한국경제신문 주관, 제2회 대한민국 사회안전박람회 개최 (11.12~15, 일산 킨텍스), 소방·자연방재 등 재난안전, 범죄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4개분야에 민·관 합동 50여개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11월9일(일)	올해 각종 안전교육 '열풍'...지난해 대비 2배, 약 4만회 실시(부산일보)
	올 들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대형사고로 안전교육이 '붐'을 이룸. 대한손상예방협회에 따르면 연말까지 예정인 안전교육은 약 4만회로서 지난해 2만1천 건에 비해 약 2배 증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의 안전교육 수요가 가장 많음
11월10일(월)	국토부, 건설현장 감리업무 실태점검(연합인포맥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도로·수자원·철도·건축물 등 584개 주요 건설현장에 외부전문가(시민단체 3명 포함) 99명 등 총 59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과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실시, 안전·품질관리 우수현장은 표창하고 규정을 위반한 부실현장에는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사회재난 관련 보도

11월12일(수)	鄭총리 “쪽방촌 등 화재안전 예방활동 강화해라” (이데일리)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쪽방촌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 재래시장과 극장 등 다중시설의 화재안전과 대형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 “국민안전처 발족 시까지 안전대응체계에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11월13일(목)	4.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등...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연합뉴스)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12일 국민안전처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후속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교부세법) 심의·의결,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계획
11월15일(토)	오대산국립공원, 산불예방 일부탐방로 통제(뉴시스)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11.15~12.15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제한,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불법취사·흡연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 소백산 및 기타 국립공원에서는 11.17부터 일부구간 통제 예정
11월16일(일)	행락철 잇단 조난사고... 철저한 산행 준비 ‘필수’(연합뉴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발생한 산악사고 318건 중 경련, 저체온증, 실족 등 준비 부족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27%(85건) 차지. 겨울철은 저체온증이나 실족 위험성이 큰 만큼 보온복 등 등산용 장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11월18일(화)	‘재난안전 사령탑’ 국민안전처 19일 출범(언론종합)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실’, ‘재난관리실’, 화학 등 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
11월19일(수)	고리원전 인근 수산물서 방사능 물질 검출(11.19, 뉴시스)
	토양에서 세슘-137, 해조류에서 요오드-131은 고리원전 인근에서만 검출
11월20일(목)	서울광장 세월호 분향소 철거...유가족 21일 합동분향(연합뉴스)
	서울시는 21일 오후 9시 분향소 철거, 서울도서관 3층에 추모공간 조성
11월21일(금)	국민안전처, 첫 中어선 특별단속...15척 나포(연합뉴스)
	25일부터 대형함정, 헬기로 구성된 기동 전단 편성·운영
11월23일(일)	한·중·일 보건장관, 에블라 대응 정보 공유하기로(뉴시스)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3국간 “보건장관회의”시 공동성명 채택



자연재난 관련 보도

11월5일(수)	소방방재청,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13개 협업기능 워크숍 개최(뉴스와이어)
	소방방재청은 5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4.12.1~'15.3.15)을 앞두고 13개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역량 강화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위해 국토부·도로공사 등 19개 중앙부처와 6개 유관기관의 재난업무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개최
11월14일(금)	국토교통부, 겨울철 폭설 대비태세 돌입(국제뉴스)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겨울철 폭설을 대비해 '14.11.15 ~ '15.3.15일까지를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설상황실 운영 등 사전대비태세 돌입, 183개소 취약 구간을 지정하여 염수분사장치 설치와 CCTV모니터링 실시 등 중점 관리 추진
11월15일(토)	올겨울 덜 춥다... 엘니뇨로 기습 '폭설' 가능성(연합뉴스)
	올 겨울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포근할 것으로 예상, 다만, 엘니뇨의 발달정도에 따라 한반도에 기습적인 폭설과 이상기온현상으로 온도변화가 심할 가능성 있어... 특히, 동해안 지방은 1~2월사이에 30cm이상의 폭설이 내릴 수 있어 철저한 대비 필요
11월17일(월)	서울시, 제설대책본부 가동... 내년 3월 15일까지(YTN)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재난안전 대책 본부 가동하고, 빠른 초등 대응을 위해 1시간 전에 눈이 내리는 징후를 포착해 시내 33개 상황실에 실시간 제공하는 화상전송시스템도 운영하며, 특보 시 지하철·시내버스 막차 시간 최대 1시간 연장 및 택시 부제를 해제할 방침
11월18일(화)	동해안 시·군 빈틈없는 준비...'폭설 끄떡없다' (연합뉴스)
	폭설이 잦은 동해안을 비롯한 강원도내 시·군에서는 폭설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설자재와 장비 확보 및 사전점검 등 도로제설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11월19일(수)	중국, APEC 끝나자 다시 '젯빛', 베이징 스모그 습격(JTBC)
	공동주택 난방이 시작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WHO 기준치 20배로 치솟아
11월20일(목)	미국서 기록적인 11월 한파·폭설...하루만에 2m 적설(JTBC)
	뉴욕주, 8명 사망 등 피해 속출로 고속도로 폐쇄 및 비상사태 선포
11월20일(목)	日, 후쿠시마 앞바다 5.3 지진...도쿄 '흔들'(YTN)
	20일 10시 51분 지진 발생, 쓰나미 가능성은 없어(일본 기상청)
11월21일(금)	올해 겨울 평년보다 포근하고 눈·비 많이 온다(연합뉴스)
	기상청, 올겨울은 기온의 변동폭이 크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전망



소방재난 관련 보도

11월7일(금)	우울한 '소방의 날'... 박 대통령 "소방관 역할 더 강화될 것" (경향신문)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소방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
11월13일(목)	[수능 이모저모]수험생 손과 발 되어준 소방대원·경찰들 (뉴시스) 2015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13일 오전 강원 홍천군 연봉읍의 정모 양이 이날 '119 수험생 수송예약제'를 이용해 고사장인 홍천여고로 119 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수험실로 입실
11월16일(일)	담양 펜션 화재, 소방당국 "취사시설 내 소방시설 미비했을 가능성" (MBN) 담양 펜션 화재, 인명피해 발생 4명 사망, 6명 부상
11월17일(월)	'목조건물' 사찰 화재 매년 50건...소방 안전 구멍 (KBS) 규모가 크거나 국보,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만 소방시설 설치규정돼 있어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사찰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
11월19일(수)	'폭발 위험' 노후 소화기 전국 수두룩 (세계일보) 15년 전 생산 중단된 가압식소화기 아직 주택 등에 90만대 비치, 표면부식으로 작동 시 폭발 위험
11월20일(목)	안전처, 민박·펜션 화재 관리 일제 점검 (경향신문) 전남 담양군 펜션 화재 사고를 계기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숙박 업소의 화재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
11월24일(월)	정화조 위 지나가다 '날벼락'... 두경과 함께 행인 추락 (연합뉴스) 한 40대 여성이 정화조 뚜껑 위로 걸어가다가 추락하는 사고, 사고가 난 정화조 주변은 재개발 공사로 지난 4월부터 지반 침하 진행
11월26일(수)	지하철 승무원, 막차 운행 후 2시간 자고 첫차 운행 (뉴시스) 스트레스 고위험군 자살 잇따라, 예산·인력부족... 근무환경 열악, 근무환경 개선 요구에도 그대로
11월27일(목)	서울시내 환기구 7% '안전 미흡' (경향신문) 서울시내 환기구 중 1318개의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수·보강 필요
11월28일(금)	영호남 화합 상징 화개장터 절반 불타 (연합뉴스) 27일 오전 2시 반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에 화재, 점포 80개 가운데 41개 태워 1억9000만원 상당 피해
11월29일(토)	담배값 올려 연간 3400억 소방안전교부세 예산확보 (국민일보) 여야가 28일 담배값을 2000원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새로 부과하기로 합의



해양재난 관련 보도

11월3일(월)	태양해경, 표류 어선, 레저보트 잇단 구조(국제뉴스)
	지난 11월 1일 오전 8시경 충남 서산시 팔봉면 원인미상의 기관고장 표류어선 구조, 모터 고장 레저보트 예인
11월5일(수)	해경, 서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 5척 나포(뉴시스)
	배타 소청도 남서쪽 50km 해상 불법 어업을 한 중국 5척 나포
11월14일(금)	해경 동해안 항공기 첫 배치(뉴시스)
	고정의 항공기(CN-235)가 동해안에 처음으로 2대 배치 14일부터 운영
11월18일(화)	‘마지막’ 해양경찰청장의 쓸쓸한 퇴장(연합뉴스)
	지난 1953년 해경 창설 후 61년만에 국민안전처로 통합
11월21일(금)	정부, 중국어선 불법 조업차단... 특공대 기동 전단 투입한다(뉴시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대형 함정과 헬기, 특공대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운영
11월22일(토)	정부, 심야 불법 조업 中어선 15척 나포(OBS)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정부가 심야에 함정과 헬기를 동원한 특별단속 실시, 20일밤부터 21일 아침까지 2개 지방본부 주관으로 4개 해역 불법 조업 어선 15척 나포
11월26일(수)	서해5도 어민 “해상 상경 시위”...“중국어선 대책 마련하라”(조선일보)
	서해 5도 어민들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해상 상경 시위
11월28일(금)	제2 세월호 없게... 24시간 해양 항공구조팀 뜬다(YTN)
	해양안전과 해양주권 수호와 관련해 전국 5개 권역에 24시간 항공구조팀을 운영
11월29일(토)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서 출범(연합뉴스)
	국민안전처 중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천 송도에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

11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발 행 : 2015년 11월

발행처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기획관 이정술, 안전기획과장 유재욱, 담당 오상목)

전 화 : 02) 2100-0406

팩 스 : 02) 2100-5430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508호

2015년 11월

재난안전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